

COVER STORY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COLUMN

대구 문화 vs 부산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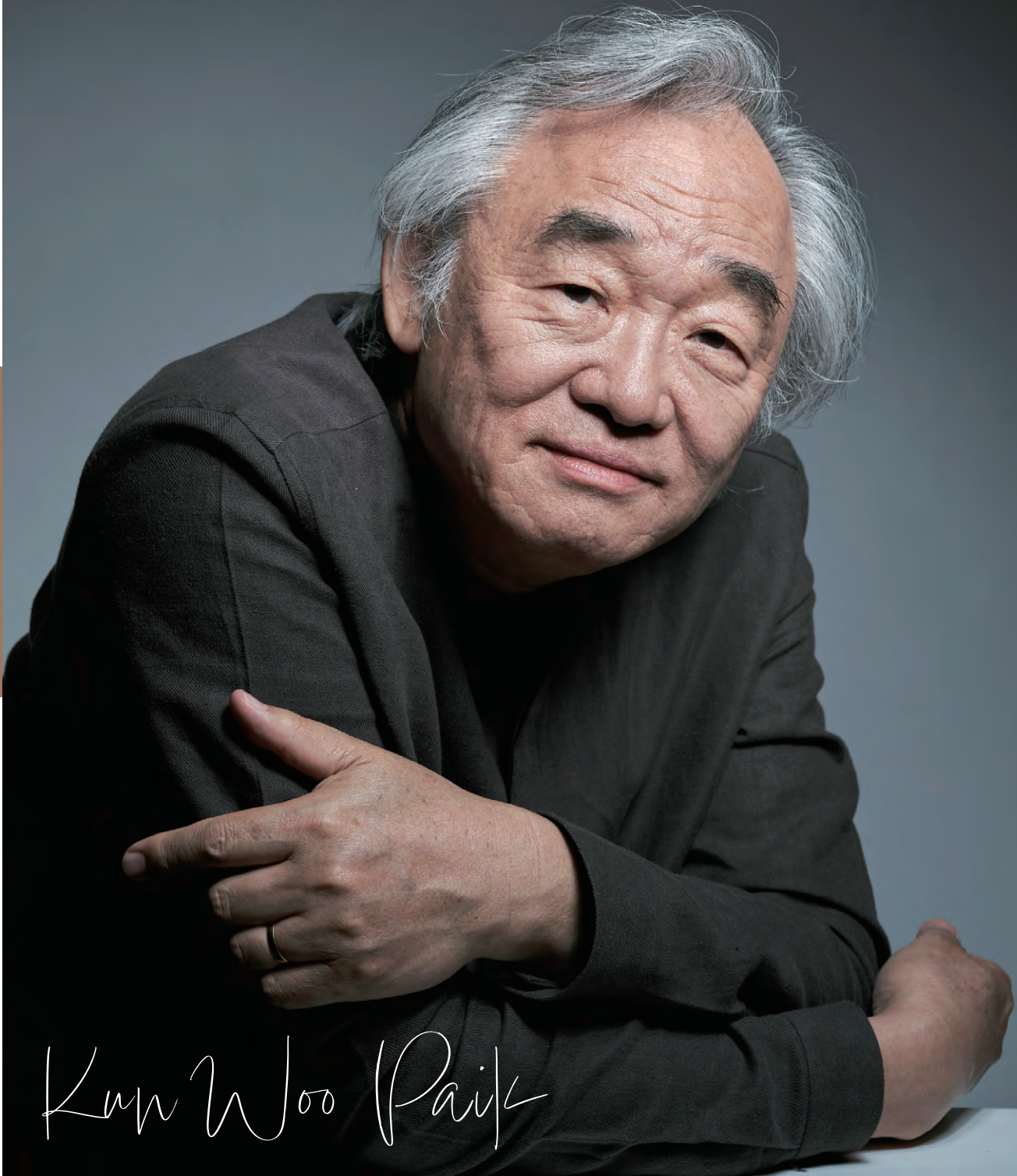
여기, 예술

우리의 일상도 예술일지 모른다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4 11월 Vol.395

Kan Woo Park



2024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창작칸타타



2024. 12. 12. 목 - 13.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작시 이청산 작곡 조원행 지휘 이동훈 연출 김지용 안무 서정숙

출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협연 소리꾼 최수정, 장서윤 | 소프라노 한아름 | 바리톤 안세범 | 비보이 킬라몽키즈 | 연희퍼포머그룹 처랏 특별출연 래퍼 제이통

입장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4인가족 30% 할인(관람연령 만5세 이상) 예매 및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연기를 통해 다양한 감성을 경험한 강석우 내면의 세계를 "시어와 선율로 풀어낸 주옥같은 곡들을 감상할 감동적인 연주회"가 될 것이다. - 박인건(서울국립극장 대표)

강석우 작품은 "섬세한 감수성과 아름다운 선율로 가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 문일근(6인 비평가그룹 음악평론가)

강석우 작품을 통해 "시대적 담론과 서정성을 내포하는 가곡 사랑이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 정갑균(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배우 강석우 렉처콘서트

내 마음의 歌曲



사회 및 해설 강석우



소프라노 강혜정



바리톤 송기창



소프라노 고예정



테너 김준연

맑고 아름다운 미색의 소프라노 강혜정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하고 배우 강석우 자신의 작품세계와 歌曲이야기를 능숙한 사회로 청중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렉처콘서트!!!

사회 및 해설_강석우 소프라노_강혜정·고예정 테너_김준연 바리톤_송기창



BOS(부산 오페라심포닉)양상블 지휘_백원석

2024. 11. 26 화 오후 7시 30분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관·추천 | (JB) 제이비(JB)아트컴퍼니 | 후원 | K 국제신문 리움아트&컴퍼니 REVIEW

| 티켓 | S석 6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입장연령 8세 이상 관람가 | 예매처 | interpark 티켓 1544-1555 | 예매 및 공연문의 | 010.3592.9002 / 010.2545.4939

구 문예회관 공동 제작 콘서트

Sun&Fun
Haeundae

영동래

영도
개끗한

LES MISÉRABLES

C O N C E R T

콘서트 레 미제라블

| 출연진 | 지휘 임희준(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장발장 최춘식 자베르 이재원 판틴 김나영 테나르디에 장용균 테나르디에 부인 신소운 코제트 이혜진 마리우스 최원갑 에포닌 방호은
소프라노 남순천 홍승현 김하정 최현서 손은경 알토 정은영 박성혜 김미경 배주향 남지희 김지윤 테너 박성환 조성기 김웅태 강은태(쿠르페락) 정은성(공브페르)
베이스 최성규 김태우(양졸라) 최기호 김창돈 구명금 도둑 선승일

| 하우스밴드 | 건반 이경미 김가현 기타 박준선 드럼 이재영 베이스 정재성 바이올린 손해림, 고소영 비올라 황영은 첼로 양지민

| 주요 제작진 | 연출 기민정 조명 김주호 음향 한정훈 밴드편곡 천득우 분장 공해경 의상대여 온스테이지

2024. 11. 7. THU 19:30PM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2024. 11. 9. SAT 17:00PM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2024. 11. 16. SAT 17:00PM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 주최·주관 | 해운대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 주관 | 영아즈컴퍼니 |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동래문화회관 051-550-6611,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 관람료 | 일반 20,000원(회관별 할인내역 및 좌석등급 상이함 자세한 사항은 각 회관 홈페이지 참조) | 예매 | 각 문예회관 홈페이지 | 입장연령 | 6세 이상 관람가

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23회 정기연주회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Suppé | Morning, Noon and Night in Vienna: Overture
Mozart | Symphony No.40, mov.1
Dvořák | Cello Concerto

첼로 심준호

지휘 정우영



진행 정설이

연주 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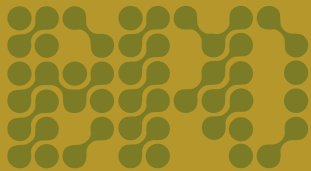
2024. 11. 10. (일) 5: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해운대구 주관 무료공연

후원 해운대사업단 문의 749-6045 (해운대구청), 010-6266-1946 (오케스트라)

※ 음악과 함께 끼와 꿈을 키워나갈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의 신규단원을 모집합니다.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V

Zoom-in 3

더블베이스 / 배기태

Double Bass / Kitae Bae

피아노 / 문재원

Piano / James Jae-Won Moon

베토벤 /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L. v. Beethoven / Sonata in F major for Double Bass and Piano, Op.17

카와가미 /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T. Kawakami / Sonata for Double Bass and Piano

마스네 /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타이스의 명상곡>

J. Massenet / Méditation from Thaïs for Double Bass and Piano

쿠세비츠키 /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슬픔의 노래>와 <왈츠 미뉴에트>

S. Koussevitzky / <Chanson Triste> & <Valse Miniature> for Double Bass and Piano, Op.2,1-2

글리에르 /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인테르메조>와 <타란텔라>

Glière / <Intermezzo> & <Tarantella> for Double Bass and Piano, Op.9, No.1,2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051-607-6000(ARS1번)

www.bscc.or.kr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BPO Night Lab

2024. 12. 6. FRI 9: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Busan Cultural Center

아이브스 • 대답없는 질문
C. Ives • The Unanswered Question

구노 • 작은 교향곡
C. Gounod • Petite Symphonie

월리엄스 • 종달새의 비상
V. Williams • The Lark Ascending

쇤베르크 • 노투르노
A. Schönberg • Notturmo

연 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백승현 Seung Hyun Baek, Conductor

바이올린 김서현 Seohyun Kim, Violin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



예매안내



2024. 10. 22.(화)~12. 6.(금)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평일(화-금) 10:30 / 토요일 11:00, 14:00 (일, 월 휴관)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제작 | 동그라미 그리기

| 예매 | 051-607-6000(ARS1번) www.bscc.or.kr

| 티켓 | 전석 20,000원

| 입장연령 | 36개월 이상

※ 평일 공연은 단체관람만 가능합니다.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4. 11월호 Vol.395



12



14



24

Column	10	대구 문화 vs 부산 문화
여기, 예술	12	우리의 일상도 예술일지 모른다
Cultural Issue	14	오페라 공연중 앙코르, 그것이 문제로다
현대미술산책	16	마티스와 피카소의 새로운 길
Cover Story	24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Preview	26	
문화가 화제 1	34	2024 부산발레시즌 샤이닝 웨이브
문화가 화제 2	36	2024 제12회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Review	38	
Program Guide	40	
New Book	57	



대구 문화 vs 부산 문화



• 박창희 경성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스토리랩 수작 대표

대구와 부산. 같은 경상도지만 같은 듯 많이 다르다. 정치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말투에서도 다르다. 같은 낙동강을 끼고 보수색 짙은 우산을 쓰고 있지만, 우산의 모양이나 색깔도 다르다. 부산에서 ‘와그라노?’라고 하면 대구에선 ‘와/그라노’라고 말한다. 약센트와 어투에서 차이가 난다.

대구와 부산은 가까운 듯 먼 도시다. 지리적 거리는 신대구 부산고속도로를 타면 1시간 반 남짓 걸리지만, 정서적 거리는 그 이상이다. 그런데도 선거 때는 양 지역 모두 보수정당에 표를 몰아준다.

TK와 PK, 지역주의

TK와 PK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피해갈 수 없는 키워드다. TK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일컫는 약자다. TK는 대구·경북을 지칭하는 단순한 지리적 표현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정치적으로 구분할 때 쓴다. 이에 대응하는 개념이 PK(부산·경남)인데, TK만큼 위력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한국정치는 TK, PK를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TK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3명 중 5명을 배출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PK지역 역시 대통령을 많이 냈다. 김영삼 문민정부부터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만 셋을 배출했다. TK, PK지역이 대한민국을 호령했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정치 지형과 지역주의는 대구와 부산의 문화에도 직·간접 영향을 끼친다. 두 지역 간 문화를 비교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시사점을 발견한다.

대구 문화의 저력

대구를 ‘보수적인 선비의 고장’ ‘보수의 아성’ 정도로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구는 근대기 문화가 태동한 예향이자 뿌리 깊은 문화도시다. 대구는 ‘오페라의 도시’일뿐 아니라 ‘뮤지컬 특별시’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국제오페라 축제(DIOF)와 매년 6월 열리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DIMF)은 대구의 공연 문화를 이끄는 쌍두마차다.

대구에는 인구(250만 명) 대비 공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로 유명하다. 서울을 빼면 가장 안정적인 관객을 보유한 도시다. 계명아트센터·수성아트피아 등 1,000석 넘는 대극장이 11개다. 지난 2003년 개관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1,600석 규모의 전국 최초 오페라 전용 공연장이다. 이곳에서 오페라 및 뮤지컬 축제가 열린다. 초연 작품이 DIMF 및 DIOF 무대에 먼저 올라 검증이 되면 서울로 올라가는 공식이 생겼을 정도다.

대구에는 현대미술의 발상지라고도 한다. 1970년대 젊은 미술가들이 대구 낙동강 인근에서 다양한 미술 실험을 펼쳤던 ‘대구현대미술제’가 기폭제가 됐다. 대구에서 열린 실험적 미술 행위는 대한민국 미술사에 한 획을 그었고, 그 저력으로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이 먹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대구엔 지방도시로선 드물게 ‘큰손 컬렉터’가 제법 많다고 한다.

보수적이고 무뚝뚝한 인상을 풍기면서도 은근과 끈기를 가진 대구는 국내 지방도시로서는 드물게 서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보유한 곳이라는 평가를 얻는다. 2024년 9월 개관한 대구간송미술관은 대구의 문화역량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개관하자마자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국보·보물급 문화유산을 보려는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부산 기질과 부산 문화

‘사람답게 살아가라!’ 부산 작가인 요산 김정환이 ‘산거족’이란 작품에서 한 말로, 의리를 저버리지 말라는 경구다. 부산 사람들은 추상적인 의리보다 생활 속 의리를 중시한다.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고자 26세 나이로 몸을 던져 일본열도를 감동시킨 이수현의 살신성인도의 의리의 발로였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 동료와의 의리 때문에 자백을 하지 않다가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도 부산 의리정신의 상징이다.

세계로 열린 글로벌 포트. 부산은 살기 좋은 도시다. 사람이 좋고, 자연이 좋다. 문화가 다채롭고 역사가 역동적이다. 자연과 거대 항만이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어우러진 곳이어 어디에 있던가. 장대한 해운대 백사장과 젊음의 광장 광안리,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오륙도, 태종대 단애와 낙동강의 철새, 금정산의 녹음, 물운대의 낙조, 그 속에 열린 갈매길. 모두가 부산의 문화 관광 자원들이다.

영화는 부산 문화 아이콘이다. 1996년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대한민국 최대의 비경쟁 영화제이다. 아시아권에서도 최고의 위상을 자랑한다. 그간의 성과로 부산은 2014년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고 있다.

부산은 한때 ‘문화 불모지’란 불명예를 뒤집어 쓰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런 이미지를 씻었으며, 대중문화가 발달해 있고 거리예술, 비보이 등 서브컬처 분야의 활동도 활발하다.

여럿이 모여 하나로 흐르는 강

지금까지 대구와 부산은 화합·통합의 가치보다 갈등·경쟁 관계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구 위천공단이나 신공항 건설 문제는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하지만 대구 사람과 부산 사람은 다른 속에서도 정서적 공감대를 이루는 요소가 있다. 정이 많고, 의리를 중시한다. 또 한 번 좋아하면 영원히 좋아한다. 똑같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두 도시는 생활공동체이기도 하다.

대구와 부산은 영남의 정치·경제·문화·관광·학문의 거점으로서 서울공화국,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대도시다. 대통령을 8명 배출한 곳으로서 자부심도 남다르다.

대구에는 오페라와 미술, 부산에는 영화와 대중가요에 각각 강점이 있다. 대구가 잘하는 것을 부산이 돕고, 부산의 강점을 대구가 밀어주면 서로 상생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자면 이해와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 예술인들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 창조, 가치 창출 작업에 나서길 기대해 본다.

우리의 일상도 예술일지 모른다

•
박소윤

(재)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미래의 식탁(출처: 부산문화재단)

아침이면 거울 불 거를도 없이 챙겨 입고, 커피 한잔을 마신 후 황황히 현관을 나선다. 막힌 도로를 이리저리 빗물처럼 빠져나와 출근하면, 하루 중 가장 긴박한 순간을 헤쳐 온 것만 같다.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를 하면서 일과를 보낸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아침에 널어둔 빨래들을 개고, 책을 펼쳐 들지만, 채 얼마 되지 않아 잠들어 버리고 마는 우리의 하루는 예술이 될 수 있을까?

1934년 출간된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으로서 예술』에서는 노동자가 생산활동에 집중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과 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 모두를 심미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다. 모든 인간의 경험은 본질상 심미성이 깃들어있는 것이므로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예술가뿐 아니라 육체노동자, 과학자, 교사, 변호사, 의사 모두 심미적 경험을 한다고 했다.

일상의 노동이 예술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또 있다.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이다. 그는 19세기 후반 영국의 문필가이자 공예가 그리고 사회개혁가였다. 18세기 이전에는 지금처럼 순수예술과 실용예술이 분화되지 않은 시기였다. 산업혁명으로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예술가와 실용예술에 종사하는 직인의 분화가 일어났다. 한편 직인들은 공장의 실용품 대량 생산에 밀려 그들이 생산하는 수공업품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게 되었다.

윌리엄 모리스는 산업혁명 이후 수공업 직인이 공장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면서, 하나의 공예품을 완성하는 과정으로서의 노동의 기쁨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술작품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노동을 통해 창작하

는 것이라고 보았기에 분업의 결과로 생겨난 노동은 예술을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노동자란 고용자에게는 공장 기계의 일부에 불과하고, 노동자 자신은 살기 위해 노동하는 인간일 뿐이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된 직접적 이유를 상업적 이윤 추구로 보았다.

노동 현장에서 인간이 인적자본으로서 존재하며 그 가치가 비용으로 산출된 지 오래다. 기업들의 제한 없는 이윤 추구는 세계 안에서 인간과 그들의 노동을 소외시키고 있다. N 잡러, 프레카리아트(precariat)와 같은 노동시장을 부유하는 이들에게 노동 자체가 예술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문화예술은 인간을 존엄으로 잇는 놓칠 수 없는 끈이다.

유네스코는 문화권을 국가가 개인의 문화생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을 표현하고 창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2014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과 무관하게 문화적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한 문화권의 발현인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커뮤니티 등 문화예술 활동의 자장 안에서 일상 속 노동을 통한 예술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30대 직장인 박은 반복되는 일상이 갖는 의미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찾아가기로 했다. 방법은 글이었다. 박은 자신의 글을 썼고,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메일로 전송한다. 40대 사업가 조는 20대부터 틈틈이 공방에서 도자기 캔들이나 유리 화병, 나무 도마와 같은 공예품들을 만들어오고 있다. 각자의 업무, 가사, 육아, 학업 등 맡은 일을 해내느라 분주한데도, 인정도 수입도 거의 없는 이 소소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창작자가 되어 분절된 삶의 틈을 채워가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고 싶은 노동을 통해 창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은 예술적 성취일 뿐 아니라 자기 삶의 완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예술로 환원시키는 프로젝트들도 있다.



미래의 식탁(출처: 부산문화재단)

스페인 요리연구가 페란 아드리아(Ferran Adrià)는 요리를 예술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통해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확장시켰다. 이때 요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술적 경험으로 위치한다. 부산문화재단도 2022년 공공프로젝트 <미래의 식탁: 기대어 깃든 물, 흙, 균>이라는 요리 퍼포먼스를 통해 참여자들과 함께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사유했다. 일상의 동작을 예술적 퍼포먼스로 전환시키는 시도도 있다. 브라질의 설치 예술가 에르네스토 네토(Ernesto Neto)는 관람자들이 작품을 만지거나 앉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객과 작품의 교변작용(transaction)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공공예술 프로젝트도 일반 관람자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기획하는 추세이다. 그중 하나가 2017년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의 <On Water>이다. 작가 아이제 에르크만(Ayşe Erkmen)은 운하와 연결된 작은 항구에 물에 잠기는 임시 교량을 설치하였다. 교량이 보이지 않는 채로 물에 들어간 참여자들은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다. 관객이 참여하여 경험을 만들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예술적 의미의 노동이 된다.

우리 각자의 지성과 감성, 몸으로 느끼는 감각, 그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게 강렬하게 내리꽂히는 직관, 생애를 통한 경험들 모두 심미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그 경험들을 작품으로 짓거나,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예술가가 되고, 어쩌면 그런 우리의 일상도 예술일지 모른다.

오페라 공연중 앙코르, 그것이 문제였다

•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2024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클래식계 최고의 화제는 단연 9월 8일 서울시오페라단 <토스카> 공연 중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상대역의 아리아 앙코르에 항의하며 무대에 난입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뉴욕타임즈 등에도 보도될 정도로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날 3막에서 카바라도시 역의 테너 김재형이 ‘별은 빛나건만’(E lucevan le stelle)을 부르자 객석에서 환호가 쏟아졌다. 지휘자의 신호에 김재형이 다시 한번 이 아리아를 부르자 게오르규가 갑자기 무대에 나타나 손을 흔드는 등 불만을 표했다. 그리고 앙코르곡이 끝난 뒤 게오르규가 지중배 지휘자에게 “여기요, 이걸 리사이틀이 아니라 공연이에요. 나를 존중해주세요(Excuse me, This is a performance, not a recital. Please, respect me)”라고 외치는 탓에 연주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공연은 재개됐지만 두 주역의 호흡이 맞을 리 없었다.

게오르규는 또 커튼콜에도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스카르피아 역의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등장했다. 하지만 일부 관중이 야유를 보내자 바로 퇴장했다. 그러자 게오르규의 돌발 행동에 분노한 일부 관객은 서울시오페라단이 소속된 세종문화회관에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해프닝은 게오르규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에 진

실 공방으로 이어졌다. 세종문화회관의 사과 요구 및 한국 언론의 비판에 대해 게오르규의 소속사 인터무지카는 오페라 전문 매체 ‘오페라 와이어’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인터무지카는 “게오르규는 오페라 중 앙코르가 서사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공연자 중 누구도 앙코르를 하지 않기로 사전에 지휘자 및 제작진과 합의했었다”며 지휘자와 서울시오페라단에 잘못을 돌렸다. 그러면서 “사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2막 직전에 지휘자는 소프라노 아리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의 앙코르를 제안했으며, 게오르규는 공연의 통일성을 위해 거절했다”면서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3막 테너의 아리아에서는 이런 결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게오르규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게오르규는 지난 2016년 오스트리아 빈 슈타츠오페라의 <토스카> 공연에서도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별을 빛나건만’을 앙코르로 부르자 한참이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었다.

반면 세종문화회관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게오르규가 관객의 공연 관람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세종문화회관은 “앙코르는 사전 계획이 아니라 라이브 공연 중 관객, 성악가, 지휘자 간의 ‘교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지휘자에게 속한 권한으로, 소프라노 1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소프라노가 개인 매니저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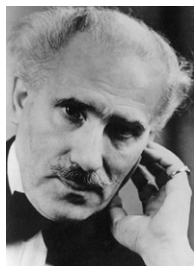
1, 2 오페라 <토스카> ©세종문화회관

자신을 포함한 공연자의 앙코르가 없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통역에게 문자로 전달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합의로 고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번 사건의 원인인 오페라 공연 중 앙코르에 대해 오페라계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관객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오페라를 더 재밌게 만든다는 입장과 서사가 있는 오페라에서 다음에 등장하는 성악가의 흐름을 방해하는 만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16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오페라가 탄생한 이후 공연 중 앙코르에 대한 첫 기록은 1712년에 나온다. 그리고 성악가가 공연 중 관객의 환호에 부응해 아리아 일부를 다시 부르는 전통이 일반화됐다. 반면 클래식 콘서트에서는 앙코르가 본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나오며, 이때 연주자가 새로운 작품을 연주하는 게 관행이 됐다.

오페라 공연 중 앙코르에 대한 변화가 생긴 것은 이탈리아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1867~1957)가 등장하면서다.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중 한 명인 토스카니니는 1898년 불과 31세에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이 됐다. 이후 그가 추진한 오페라 문화의 개혁 가운데 하나가 공연의 흐름을 깨는 공연 중 앙코르의 금지였다. 하지만 당시 공연 중 앙코르를 당연하게 생각하던 성악가와 관객의 반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1903년 라 스칼라 극장에서 <가면무도회>를 공연할 때 토스카니니는 스타 테너 조반니 제나텔로의 아리아에 대한 관객의 거센 앙코르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연주를 진행했다. 관객이 소리치르는 등 극장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화가 난 토스카니니는 공연 도중 지휘봉을 내던지면서 음악감독을 사퇴해 버렸다. 3년 뒤 다시 라 스칼라 극장 음악감독으로 복귀한 그는 오페라 공연 중 앙코르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토스카니니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에서도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는 등 세계 음악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만큼 공연 중 앙코르 금지는 오페라계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모든 오페라극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지만 구시대적 관행으로 여겨지게 됐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공연 중 앙코르 금지에 엄격했던 라 스칼라 극장과 MET에서도 오페라 공연 중 앙코르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라 스칼라 극장에서는 1986년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2008년 오페라 <연대의 딸>에서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즈가 아리아 ‘아 나의 친구들이여’의 앙코르 공연이 이뤄졌다. 또 MET에서는 1994년 전설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을 부르고 나서 열광적인 앙코르 요청에 다시 한번 불렀고, 2008년 플로레즈가 라 스칼라 극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대의 딸> 중 ‘아 나의 친구들이여’를 다시 불렀다. 지금은 전 세계 오페라계에서 공연 중 앙코르에 대해 관객이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바뀐 듯하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테너 이용훈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서울시오페라단의 <투란도트>의 마지막 공연에서 ‘공주는 잠 못 들고’를 앙코르로 부른 바 있다. 이번 서울시오페라단의 <토스카> 사태는 자신을 존중해달라면서도 자신은 관객을 존중하지 않은 게오르규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서울시오페라단의 공연 진행도 미숙했다고 보여진다. 서울시오페라단이 공연을 앞두고 게오르규 캐스팅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을 했던 만큼 공연 중 앙코르에 대해 예민한 게오르규를 신경 썼어야 했다. 결국, 그렇지 못했던 탓에 관객도, 게오르규도, <토스카>의 다른 출연진도, 서울시오페라단도 모두 행복하지 않은 결말을 맞았다.

마티스와 피카소의 새로운 길

박승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스무 살 초반의 야망 가득한 청년, 피카소는 1905년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는 분명 자신의 아내를 모델로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얼굴에는 초록색 물감이 대충 찍혀 있었고, 모자와 옷의 디테일은 사라진 채 거친 색채들이 난무할 따름이었다. 이처럼 그림 속 형상과 색채는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멋대로였으며 그 자체로 자신들의 존재를 주장하고



앙리 마티스, <모자를 쓴 여인>, 1905, 캔버스에 유화, 80.65×59.69cm, 샌프란시스코현대미술관

있었다. 한 사람이 마티스에게 부인이 당시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묻자 마티스는 검은 옷이라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마티스의 기괴한 작품이 전시된 곳은 가을 살롱전(展)으로, 보수적인 국가 미술기관인 아카데미에 반대하며 전위적 예술가들을 주축으로 1903년 설립된 곳이다. 급진적 예술가들의 무대라지만 마티스는 나아가도 너무 나아갔다.

마티스는 19세기 후반의 미술, 특히 개인의 감성이나 관념을 표현하던 고흐, 고갱, 세잔 등의 후기 인상주의를 연구하면서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이들의 지향점은 달랐지만, 지금까지 현실의 사물을 모방하던 선과 색채가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즉 실제 사물을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캔버스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형태와 색채가 자체적인 규칙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었다. 마티스는 여기서 순수한 시각적 아름다움의 세계라는 미술의 새로운 이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곧 예술의 순수성을 주장하며 등장하게 될 20세기 초반 모더니즘 미술의 이상이기도 했다. 순수성의 추구는 원시주의에서 이미 봤던바, 형태는 달랐지만, 고흐는 시골 마을 아를에서, 세잔은 엑상프로방스에서, 고갱은 타히티에서 스스로 고귀한 야만인(noble savage)이 되어 순수한 미술을 전개해 나갔다. 더욱이 고갱을 사로잡았던 강렬한 원시의 충동은 야수주의(Fauvism)로 명명될 화가들을 매료시켰다. 1905년 어느 날, 거친 야수주의자 블라맹크(Maurice de Vlaminck, 1876~1958)는 우연히 카페에서 본 아프리카 가면에서 강렬한 운명을 직감했고 그것을 가져와 예술적 동지인 마티스와 드랭(André Derain, 1880~1954)에게 보여주었다. 이 셋은 아프리카 가면이 주는 날것의 형태와 정제되지 않은 감성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채택하였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배하던 자연스러운



파블로 피카소,
 <아비뇰의 처녀들>,
 1907, 캔버스에 유화,
 243.9×233.7cm,
 뉴욕현대미술관

명암, 수학적 원근법, 사실적인 묘사를 거부하고, 감성이 근거하여 터질듯한 붉은색, 서슬 퍼런 푸른색 따위로 캔버스를 공격했다. 나아가 마티스를 비롯한 야수주의자들은 세잔을 받아들여 소묘와 채색의 대립을 거부하고 색채와 형태를 통합했다. 그러자 야수의 손아귀처럼 발산하는 색채형태는 보는 이를 놓아 주지 않았다.

야수주의자들이 파장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자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미국에서 온 부호 컬렉터, 스타인 남매 집에서 마티스가 가져온 아프리카 조각을 보고 피카소는 내심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연이어 1907년 열린 세잔의 회고전은 피카소에게 사물을 보는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세잔은 고정된 시점을 파괴하고 다시점을 넣어 사물의 본질적 형태를 강조했다. 그러자 화면은 자체의 도형적 질서로 구축되었다. 세잔은 화가란 외부의 풍경을 모방하는 자가 아닌,

캔버스라는 자율적 공간 속에서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창조자임을 보여줬다. 세잔의 혁신은 마티스에게 색채로, 피카소에게서는 형태로 드러났다.

마티스의 강렬한 색채, 원시 미술이 간직한 생생한 감각, 세잔의 도형적 질서를 차곡차곡 흡수한 피카소는 1907년 미지의 땅으로 발을 내디뎠다. 피카소 자신도 우려했기에 나름 전위 예술을 한다는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작품을 공개했으나 그들도 충격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지금껏 전혀 보지 못했던 미술이 펼쳐졌던 것이다. 바로 입체주의의 서막을 알리는 <아비뇰의 처녀들>이었다. 그림 속 공간은 깊이감이라곤 전혀 없으며 여성들의 신체는 삼각형, 마름모로 단순화되었는데 이마저도 조각난 것처럼 여러 곳에서 본 것을 오려 붙여 놓은 듯 했다. 우측 두 여인의 얼굴은 아프리카 가면 형상이며 맨 왼쪽 여인은 이집트 부조와 같은 모습이다. 여인들은 왜 저렇게 표현되었는지, 그림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따위의 추측은 불가능했고, 인물을 이루는 극단적 도형에서 오는 무시무시한 시각적 효과가 관람자를 압도했다. 모두가 피카소의 작품 앞에서 할 말을 잃었지만 한 사람만은 알쏭달쏭한 미소를 지으며 피카소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역시 세잔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으니 피카소로 인해 세잔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흘깃 보았던 것이다. 그는 바로 훗날 피카소의 예술적 동지가 될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였다. 그는 원근과 세부 묘사를 생략하고, 집을 정육면체로 바꿔 놓은 채 그림 속 모든 형태를 화면 앞으로 당겨놓았다. 그리고 황갈색의 고 큰 색채로 화면을 덮었다. 마티스는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 (1908)을 보고는 '입방체'라 하였고 브라크와 피카소의 작품은 이내 큐비즘(Cubism, 입체주의)이라 불리게 된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지금까지 미술사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보기를 제시했다. 그들은 입체를 해체하여 모든 면을 펼쳐 사물의 특징적 형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재조립을 하였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간을 사물과 뒤섞어 놓았다. 입체주의의 진가를 알아봤던 화상(畫商) 칸바일러를 그린 피카소의 <다니엘-헨리 칸바일러의 초상>(1910)을 보자. 지금까지 배경은 사물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배경은 존재를 드러내며 사물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그러자 서로 뒤섞인 사물과 배경은 자신들이 그려진 공간이 2차원 평면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시 3차원의 형상을 자아내는 기이한 현상을 연출한다. 사물과 배경의 절대적 위계, 고정된 하나의 시점을 근거로 한 3차원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묘사하는 서양미술사의 전통이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 시기(1908~1911), 두 사람의 여정은 '분석적 입체주의'로 불린다.

대상과 배경이 뒤섞이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두 사람은 분석적 입체주의를 밀고 가기를 주저하며 화면 속에 대상을 암시하는 글자, 사실적인 표현, 신문, 잡지, 벽지 등의 일상 사물을 붙이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종합적 입체주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다. 그들은 혹여나 화면이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될까 봐 고민했던 것이다. 이 상황을 지켜본 몇몇 예술가들은 추상적 요소를 극단으로 밀고 가기로 한다. 곧 순수 추상이라는 미술에서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등장할 것이다. 물론 이 새로운 아름다움은 고상한 의미를 지닌, 전통 미술이 보여주는 아름다움과는 다른 차원임은 분명하다.



조르주 브라크, <에스타크의 집>, 1908, 캔버스에 유화, 73×59.5cm, 베른 미술관



파블로 피카소, <다니엘-헨리 칸바일러의 초상>, 1910, 캔버스에 유화, 100.4×72.4cm, 시카고 미술관



대학교향악축제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IN BUSAN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11. 17.(일) 17:00 동아대학교 / 지휘 조용민
- 11. 19.(화) 19:30 동의대학교 / 지휘 윤상운
- 11. 20.(수) 19:30 인제대학교 / 지휘 정인혁
- 11. 23.(토) 17:00 경성대학교 / 지휘 최혁재
- 11. 24.(일) 17:00 부산대학교 / 지휘 김진연

SUN	MON	TUE	WED
<p>사랑채극장</p> <p>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월 22일(화)-12월 6일(금) 평일 오전 10:30(단체관람),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월요일 휴관) 관람료: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전시실</p> <p>2024년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사업 ACCORD '공백'·HOLE 'PinHole'</p> <p>11월 6일(수)-11월 8일(금)</p> <p>·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제50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11월 19일(화)-12월 7일(토)</p> <p>· 문 의: (사)부산미술협회 632-2400</p> <p>* 매주 월요일 휴관</p>	
<p>3</p> <p>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제66회 정기연주회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푸치니 오페라 하이라이트' 19:00</p> <p>대 5만원·3만원·2만원/UKO(010-5468-4658)</p> <p>Die Fagottisten 제2회 정기연주회 18:00</p> <p>챔 디 파고티스텐(010-6650-1771)</p>	<p>4</p>	<p>5</p> <p>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6회 정기연주회 '나의 생애로부터 II' 19:30</p> <p>챔 전석 2만원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010-9336-2687)</p>	<p>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부 '오르다' 19:30</p> <p>대 무료/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부</p> <p>부산한새리코더교육연구회 19:00</p> <p>챔 부산한새리코더교육연구회</p>
<p>10</p> <p>제9회 유엔평화기념관합창단 정기연주회 'Turn Toward Busan 전야음악회' 17:00</p> <p>대 무료/유엔평화기념관합창단(010-2829-2645)</p> <p>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23회 정기연주회 17:00</p> <p>중 무료/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749-6045, 010-6266-1946)</p> <p>박찬식 타악기 독주회 17:00</p> <p>챔 전석 1만원/박찬식(010-2766-3246)</p>	<p>11</p> <p>2024 토티워드 부산 'UN 평화 음악회' 19:30</p> <p>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12</p> <p>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재밋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10:30</p> <p>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5, 3113)</p>	<p>1</p> <p>제26회 남구문화예술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19:00</p> <p>챔 초대/부산남구문화예술회</p>
<p>17</p> <p>2024 대학교향악축제 '동아대학교' 17:00</p> <p>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4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최우수 연출가 선정작 '바다에 뿌리 내린' 16:00</p> <p>중 전석 3만원/부산문화재단(745-7293)</p> <p>강소연 바이올린 독주회 'Dos : Encuentro' 17:00</p> <p>챔 초대/강소연(010-2107-8407)</p>	<p>18</p>	<p>19</p> <p>2024 대학교향악축제 '동의대학교' 19:30</p> <p>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p> <p>2024 대학교향악축제 '오륙도 평화음악회' 19:00</p> <p>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캔들라이트: 히사이시 조 챔 크세모스 코리아 유한</p>
<p>24</p> <p>2024 대학교향악축제 '부산대학교' 17:00</p> <p>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5</p>	<p>26</p> <p>배우 강석우 렉처콘서트 '내 마음의 歌曲' 19:30</p> <p>대 6만원·5만원·3만원/JB아트컴퍼니 (010-3592-9002, 010-2545-4939)</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제49회 청소년 협연의 밤 19:30</p> <p>중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교향악단 실내악 시리즈 IV '줌인(Zoom-in) 3' 19:30</p> <p>챔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p> <p>이은호 바순 콰르텟 연주회 챔 전석 2만원/마에스트로</p>

ED	THU	FRI	SAT
		1	2
		<p>◆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현대합창의 밤 V' 19:3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창작오페라 '페스트' 14:00, 19:30 중 7만원·5만원·3만원 루체테음악극연구소(513-1009)</p> <p>김해선 피아노 리사이틀 'Schubertiade' 19:30 챌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 압판 츠베덴&클라라 주미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17:00 대 9만원·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포레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포레의 저녁만찬' 17:00 중 전석 3만3천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김지윤 바이올린 독주회 19:00 챌 전석 2만원/김지윤(010-2886-3947)</p>
6	7	8	9
<p>악 제42회 정기연주회 국음악학과(510-1739)</p> <p>회 제33회 정기연주회 연구회(010-4546-0335)</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4회 정기연주회 'England'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이환석 클라리넷 독주회 'virtuoso!' 19:30 챌 필슈파스(010-6284-6357)</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5회 부산청소년합창제' 19:00 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치유와 위안의 음악 'THE NEW AGE' 19:30 챌 전석 3만3천원 (주)이지클래식 예술기획(0507-1349-6851)</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5회 부산청소년합창제' 15:00 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김정은 피아노 독주회 17:00 챌 전석 2만원/가온클래식(070-8811-0513)</p>
3	14	15	16
<p>음악회 정기연주회 00 술회(010-9287-6350)</p>	<p>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교실 밖 합창여행' 10:3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5, 3113)</p> <p>메조소프라노 강희영 독창회 '사랑의 노래' 19:30 챌 초대/Kongnamul(010-7155-1779)</p>	<p>성악가들이 부르는 인기가요&뮤지컬 콘서트 19:30 대 10만원·8만원·5만원·4만원 부산문화(1600-1803)</p> <p>베이스 손상혁 귀국독창회 19:30 챌 전석 2만원/손상혁(010-5421-0618)</p>	<p>2024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최우수 연출가 선정작 '바다에 뿌리 내린' 15:00,19:00 중 전석 3만원/부산문화재단(745-7293)</p> <p>강수이 비올라 리사이틀 17:00 챌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0	21	22	23
<p>제 '인재대학교' 19:30 문화회관(607-6000)</p> <p>최고의 작품 19:30 회사(010-5652-7749)</p>	<p>콘서트 오페라 '아서왕' 19:30 대 드림문화예술(010-3423-4790)</p> <p>멜로매니아 제30회 정기연주회 19:30 챌 초대/멜로매니아 (010-3885-6600, 010-9692-3973)</p>	<p>2024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사업 PPP(PUSAN PIRI PROJECT) '도약' 19:30 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4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사업 오페라 '코지 판 투테' 19:30 중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2024 대학교향악축제 '경성대학교' 17:0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4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사업 오페라 '코지 판 투테' 15:00 중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대학교 효원클래식기타연구회 창립 50주년 기념연주회 17:00 챌 무료/효원클래식기타연구회(010-7540-1652)</p>
7	28	29	30
<p>회 19:30 로 컴퍼니(02-525-2761)</p>	<p>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수능생 음악회_열쑤!!' 11:00 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5, 3113)</p>	<p>◆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5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수능생 음악회_열쑤!!' 11:00 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5, 3113)</p> <p>제5회 고신클라비어 정기연주회 19:30 챌 초대/고신클라비어(010-5286-0908)</p>	<p>2024 부산불교합창제 17:00 대 무료/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867-0501, 010-6678-9292)</p> <p>◆ 2024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VI_암정무' 15:0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황성훈 피아노 리사이틀 17:00 챌 전석 3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
<p>전시실</p> <p>부산무형문화재 아트페어 11월 1일(금)-11월 10일(일) 전시실 1, 2 ·문 의: (사)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연합회 758-2530~1</p> <p>부산전승공예보존회 정기공예전 장인의 어제와 오늘 11월 12일(화)-11월 24일(일) 전시실 1 ·문 의: 부산전승공예보존회 010-7533-2356</p>	<p>부산서각동인전 11월 14일(목)-11월 17일(일) 전시실 2 ·문 의: 부산서각동인회 010-3882-2993</p> <p>박수진 개인전 '식물과 사람' 11월 20일(수)-11월 24일(일) 전시실 2 ·문 의: 박수진 010-8916-8466</p> <p>* 매주 월요일 휴관</p>		
<p>3</p> <p>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14:00 소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4</p>	<p>5</p>	<p>6</p> <p>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 10:3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p>
<p>10</p> <p>뮤지컬 '최고다 호기심딱지_뽕뽕 이야기 속으로' 11:00, 14:00 대 6만6천원·4만4천원/숨비 Lab(1522-7176)</p>	<p>11</p>	<p>12</p> <p>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예술의 밤' 19:30 대 무료/부산여성문화회관(320-8341)</p>	<p>13</p>
<p>17</p>	<p>18</p>	<p>19</p>	<p>20</p>
<p>24</p>	<p>25</p>	<p>26</p> <p>제2회 바다음악회 19:30 대 한국산림관리산업협회(660-3603, 010-4925-1378) 제19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 19:00 소 (사)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02-555-0822, 010-8729-0429)</p>	<p>27</p>

ED	THU	FRI	SAT
		1	2
			<p>제10회 부산국악축제 '도담도담' 17:00</p> <p>대 (사)부산국악협회(644-5211)</p> <p>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14:00, 18:00</p> <p>소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7	8	9
공연 '교실 밖 합창여행' 팀(607-3115, 3113)			<p>뮤지컬 '최고다 호기심딱지_뽕뽕 이야기 속으로' 11:00, 14:00, 16:30</p> <p>대 6만6천원·4만4천원/숨비 Lab(1522-7176)</p> <p>사랑의 음악회 17:00</p> <p>소 (사)아지무스오페라단(010-9550-4649)</p>
	14	15	16
	<p>제16회 부산문화예술큰잔치 13:00</p> <p>대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554-0159)</p>	<p>제14회 부산실버 종합예술제 13:30</p> <p>대 (사)대한노인회부산광역시연합회(010-8996-5101)</p> <p>부산시립극단 제7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코카서스의 백묵원' 19:30</p> <p>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4 김창옥 토크콘서트 시즌4 14:00, 18:00</p> <p>대 8만8천원·7만7천원/썬하늘이엔티(1688-6675)</p> <p>부산시립극단 제7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코카서스의 백묵원' 17:00</p> <p>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1	22	23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19:30</p> <p>대 8만원·6만원·4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극단 제7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사천의 선인' 19:30</p> <p>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17:00</p> <p>대 12만원·9만원·6만원·4만원 라이브러리컴퍼니(070-4190-1289)</p> <p>부산시립극단 제7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사천의 선인' 17:00</p> <p>소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28	29	30
	<p>KNN방송교향악단 제7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19:30</p> <p>대 3만원·2만원·1만원/KNN방송교향악단(850-9568, 010-7990-9568)</p>	<p>BBS마인드 힐링콘서트 '가무천년대축제' 19:00</p> <p>대 BBS부산불교방송(797-5120, 010-2512-8984)</p>	<p>임동민 피아노 리사이틀 17:00</p> <p>대 썬오리지널라이브(02-540-2706, 010-7170-4750)</p> <p>이소정의 소리여행 17:00</p> <p>소 이소정 국악예술원(010-5296-1478)</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제35회

부산 청소년

Busan Youth Chorus Festival

합창제



2024. 11. 8.(금) 19:00 / 11. 9.(토) 1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INVITATION TO THE ARTS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C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H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O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E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E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인디아아트홀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S SM아트홀 1600-1602



'순수'로 돌아가 '나'를 마주하다 백건우 피아노 리와이틀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VIP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가 이번에는 모차르트와 함께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5월 선보인 그의 첫 모차르트 앨범 ‘모차르트-프로그램 1’ 발매를 기념하는 전국 투어콘서트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무대에 올랐지만 모차르트의 작품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은 데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백건우는 지난해 모차르트의 18개 작품을 골라 녹음을 진행했고, 세계적인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음반을 발표하고 있다. 백건우의 모차르트 앨범은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3개의 시리즈로 탄생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이번 앨범 커버에 초등학생이 그린 자신의 자화상을 입혀 색다른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Program

모차르트/ 환상곡 d단조 K.397

모차르트/ 론도 D장조 K.485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2번 F장조 K.332

Intermission

모차르트/ 안단테 F장조 K.616

모차르트/ 아다지오 b단조 K.540

모차르트/ 지그 G장조 K.574

모차르트/ 환상곡 c단조 K.396

모차르트/ 전주곡과 푸가 C장조 K.394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Jinsoo Lee



백건우의 생애 첫 모차르트 투어 순수함으로 돌아가 마주한 모차르트

매년 다른 작곡가의 삶과 음악을 조망하고 탐구하며 치열하게 고민해온 백건우에게도 모차르트는 고민의 대상이었다. 모차르트 음악 어딘가에 살아있는 순수함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선불리 음반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그는 모차르트가 악보에 담아낸 ‘있는 그대로’의 음악을 어린이의 ‘순수함’에서 답을 얻어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한 나와와의 대화를 통해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투어콘서트에서 백건우는 5월 발매된 첫 음반과 함께한다. 지금까지 많이 연주되던 모차르트의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 어떤 순서로 연주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작품이 다르게 들릴 정도라니, 얼마나 고심해서 선곡했는지 연주자의 깊은 고민이 느껴진다. 이번 공연은 거장의 반열에 오른 백발의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순수의 세계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로서 행보를 시작한 지 올해로 68년, 세계적인 권위의 콩쿠르에서 수차례 수상하며 거장의 반열에 오른 백건우. 일흔을 넘긴 나이에도 매일 피아노 연습과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를 사람들은 ‘건반 위의 구도자’라 부른다.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난 백건우는 1956년 열 살의 나이에 김생려가 지휘하는 해군교향악단(현 서울시립교향악단)과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으로 데뷔했다. 이듬해 자신의 이름을 건 연주회에서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한국 초연으로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다. 15세에 콩쿠르 참가를 위해 처음 미국으로 건너가, 이후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러시아 피아니즘의 위대한 계보를 잇고 있는 로지나 레빈을 사사했다.

1969년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장래가 기대되는 피아니스트’라는 심사평과 함께 금상을 수상한 백건우는 1971년 뉴욕 나움부르크 콩쿠르에서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같은 해 뉴욕 링컨센터 엘리스 툴리홀에서 독주회를 개최했고, 1972년에는 링컨센터에서 라벨의 피아노 독주곡 전곡을 연주하며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

다. 이후 유럽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 1974년 런던 위그모어 홀, 1975년 베를린 필하모니홀 등에서 독주회를 열었고 일로나 카보스, 빌헬름 켐프, 귀도 아고스티 같은 대가들을 사사하며 꾸준히 음악에 정진했다. 1987년 BBC 프롬스 페막 무대에 초청받아 BBC 심포니와 협연했고, 1991년 5월에는 폴란드 TV로 중계된 ‘프로코피예프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안토니 비트가 지휘하는 폴란드 국립 방송 교향악단과 함께 프로코피예프의 5개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연주했다.

1992년 스크랴빈 피아노 작품집으로 디아파종상을 수상했으며, 1993년에는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으로 디아파종상을 포함한 프랑스 3대 음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2000년 데카 클래식과 계약을 맺은 백건우는 부조니 편곡의 바흐 오르간곡집을 시작으로 포레, 쇼팽 등 다양한 작품으로 음반을 발매했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전곡집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념비적인 성과다.

2016년에는 60년 연주 인생의 동반자였던 관객들을 향한 감사의 뜻을 담아, 청중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공모로 선별하여 연주하는 리사이틀 ‘백건우의 선물’을 선보였다. 2007년과 2017년, 8일 동안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 리사이틀 무대를 선보이며 뜨거운 성원을 받았고, 2019년 2월에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쇼팽 녹턴 전곡 음반을 발매하며 15개 도시에서 ‘백건우와 쇼팽’ 리사이틀 투어를 성료했다.

2020년에는 슈만 신보 발매와 함께 ‘백건우와 슈만’ 리사이틀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22년에는 스페인 작곡가인 엔리케 그라나도스의 대표작, 고예스카스를 담은 신보가 발매되었는데 발매에 앞서 고예스카스의 영감이 된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 산 페르난도 왕립 미술원에서 리사이틀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해 9월에는 전국 리사이틀 투어를 통해 한국 관객에게 그만의 고예스카스를 소개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며 연주에 전념하고 있는 백건우는 예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 문화 기사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23년 제6회 성정 예술인상을 수상했다.

부산시립극단 제7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베르톨트 브레히트 코카서스의 백묵원·사천의 선인



코카서스의 백묵원

11월 15일(금)-16일(토), 22일(금)-23일(토)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사천의 선인

극단의 레퍼토리를 다각화하고 단원들이 주도하는 배우와 연기 중심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부산시립극단이 매년 열어온 '스타프로젝트' 2024년 무대가 11월 15일부터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연출 강태욱



연출 주형준



'사천의 선인' 연습장면

올해 스타프로젝트의 주인공

공은 혁명적인 극작가이자 연출가 브레히트로,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코카서스의 백묵원', '사천의 선인'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무대는 객원연출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태욱, 주형준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으며, 여기에 올해 부산지역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제1기 공연예술 아카데미' 교육생 15명이 제작실습과정으로 참여한다.

독일의 극작가이자 시인, 연출가인 브레히트는 감정이입과 카타르시스(정화)로 대변되는 서구의 전통적 연극관을 해체하면서 20세기 연극 운동에 서사극의 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그의 서사극은 관객이 무대 위의 사건이나 극중 인물에 무비판적으로 몰입하거나 공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소외효과를 즐겨 사용했다. 초기에는 무정부주의자였으나, 전쟁을 겪으며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부르주아의 탐욕을 드러내는 극본과 사회주의 소설을 집필했다.

첫 번째 무대인 '코카서스의 백묵원'은 브레히트와 그의 악극단 '베를리너 앙상블(Berliner Ensemble)'이 중국 원나라의 희곡 '원곡선'에 나오는 '석회동그라미 재판' 일화를 재구성하여 만든 이야기이다. 원작을 재구성, 각색한 강태욱 연출가는 브레히트가 개념을 정의하고, 장르화시킨 '서사극'의 형식적 특징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을 압축했다.

두 번째 작품인 '사천의 선인'은 브레히트가 중국 쓰촨성을 배경으로, 사람을 선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인간성의 파괴를 그린 작품이다. 주형준 연출가는 이번 무대에서 극단적인 자유의 시대,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자본주의의 정글에서 인간의 조건은 무엇이며, 과연 '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실내악 시리즈 V 줌인(Zoom-in) 3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 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과 외부 연주자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실내악 시리즈 '줌인(Zoom-in)' 세 번째 무대가 11월 26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줌인(Zoom-in)'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솔리스트로서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한 무대로, 특히 스타

성이 높은 단원을 재조명하고 유명 연주자와의 협업을 통해 격조 높은 실내악 음악을 들려준다.

'줌인(Zoom-in)' 세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으로 있는 더블베이스리스트 배기태와 피아니스트 문재원. 현재 TIMF 앙상블, 화음챔버오케스트라 멤버로도 활동 중인 배기태는 독일 자르브뤼켄 국립음대 영재 및 전문연주자과정,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동 대학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훔부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 조지아 체임버오케스트라, 윤이상 솔로이스츠 베를린, 원코리아오케스트라, 디토오케스트라 수석 및 객원수석을 역임했으며 통영국제음악제, 평창대관령음악제, 포항음악제, 파리프레장스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피아니스트 문재원은 독일 하노버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야마하 청소년 국제 피아노콩쿠르, 델리아스타인버그 국제 피아노콩쿠르, 시드니 국



더블베이스 배기태



피아노 문재원

제 피아노콩쿠르, 심포니 오스트레일리아 영 퍼포머즈 어워즈, 레브블라센코 피아노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피아니스트 손열음과의 듀오음반 'Under the Sun' 발매를 비롯해 김한, 함경, 손태진, 대니구, 최정원, 임선혜, 김순영, 손지수, 라포엠 등

다수 아티스트와 음반작업을 했으며, MBC 표준FM '별이 빛 나는 밤에' 고정 게스트 및 MBC 'TV예술무대', KBS '열린음악회', '불후의 명곡', '아침마당', SBS '스티킹', JTBC '차이 나는 클라스', KBS '클래식 FM' 등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클래식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테츠오 카와가미의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비롯하여 쥘 마스네의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타이스의 명상곡', 쿠세비츠키의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슬픔의 노래', '왈츠 미뉴에트', 글리에르의 더블베이스와 피아노를 위한 '인테르메조', '타란텔라' 등 늦가을 서정과 잘 어울리는 더블베이스, 피아노의 아름다운 앙상블을 감상할 수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5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4년 창단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올해 마지막 정기연주회로 관객과 만난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선택한 작곡가는 ‘불멸의 음악가’ 베토벤. 특히 영혼을 담은 열정적인 음악, 견고한 연주력과 긴밀한 호흡을 자랑하는 트리오 콘 스피리토(Trio con Spirito)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멋진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정진희, 첼리스트 정광준, 피아니스트 진영선으로 구성된 트리오 콘 스피리토는 2008년 독일 베를린에서 실내악의 거장 에버하르트 펠츠 교수의 지도 아래 결성되어 올해로 창단 16주년을 맞이하였다. 멤버 교체 없이 한 팀으로 지내는 아름다운 그들의 화합은 함께한 오랜 시간만큼 빛난다.

트리오 콘 스피리토는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음악대학 최초로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에 입학하여 Florian Wiek, Vogler Quartet을 사사하며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는데, 이는 독일에서 한국 국적의 앙상블 단체가 받은 첫 번째 최고과정 학위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2009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Maria Canals 국제음악콩쿠르 준결승에 진출하여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후 네덜란드 Charles Hennen 국제실내악 콩쿠르에서 Baerenleiter 특별상과 함께 1위 없는 2위로 우승하고 그리스의 Thessaloniki 국제실내악 콩쿠르에서는 우승 및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휘 백승현



트리오 콘 스피리토

국제콩쿠르 무대에서의 성과들과 함께 트리오 콘 스피리토는 많은 부분에서 ‘한국인 최초’의 타이틀과 함께 세계적 실내악 팀들에 비견되는 국제적 위상을 얻으며, 유럽의 유서 깊은 음악제는 물론, 예후디 메뉴헨 재단 연주자로 선발되면서 수많은 무대에 초청받아 완성도 높은 연주로 관객과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수석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을 시작으로 ‘삼중협주곡 작품 67’, 그리고 교향곡 제5번 ‘운명’으로 관객들을 베토벤의 음악세계로 이끈다. 첫 곡인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를 소재로 작곡한 발레음악으로, 1801년 빈의 부르크극장에서 초연되어 큰 성공을 거뒀으나 현재는 서곡만 종종 연주되고 있다. 트리오 콘 스피리토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삼중협주곡 작품 67’은 세 개의 다른 독주 악기를 내세운 독특하고 파격적인 협주곡이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마치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듯한 첫 소절로 유명한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들려준다.

2024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VI 미술사학자 양정무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층 3만원, 2층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 한 해 인문학이 전해주는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재)부산문화회관의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가 미술사학자 양정무의 강연을 마지막으로 2024년 일정을 마무리한다.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는 대한민국 명사들의 강연과 다채로운 공연이 함께 펼쳐지는 (재)부산문화회관의 강연형 콘서트로, 올해는 '인문학적 패러다임:공존'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출연, 다양한 주제의 강의로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올해 마지막 주자인 미술사학자 양정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그동안 미술 대중화에 앞장서 오면서 '미술 대중화의 아이콘', '서양미술사 학계의 유홍준', '한국의 고프리치'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미술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특히 서양미술의 발전을 상업주의와 연결시킨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양정무 교수는 '인문학의 꽃'으로 불리는 미술사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데 관심이 많다. '차이나는 클래스', '예썰의 전당',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신기한 미술나라' 등 다양한 방송과 대중강연,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30만 부가 팔린 교양미술서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시리즈 등 여러 권의 책을 발간하여 미술 속에 담긴 이야기를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들려주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의 주전공이라 할 수 있는 '르네상스의 완성과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만난다. 르네상스는 중세에 경원시 당하던 그리스-로마 고전을 재발견하면서 시작했으나, 이젠 그 고전을 넘어선다. 르네상스 시대 탄생한 작품들은 서양미술사의 새로운 고전으로 등극했으며 향후 500년 동안 서양미술사를 지배하는 강력한 전형이 된다. 16세기 르

네상스 거장의 작품을 통해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황금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돌아본다.

강연에 앞서서는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로 있는 김준희의 해금연주가 펼쳐진다. 김준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계례악 이수자로 있으며, 국립국악원 정악단원 및 창작악단 수석, 악장, 지도단원을 역임했다. 이날 무대에서 김준희는 호소력 짙은 멜로디와 풍성한 농현을 통해 해금의 아련한 음색을 잘 살려주는 해금독주곡 'summer'(박영란 곡),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애절한 해금의 울림 '동녘뫼'(이지혜 곡)를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94회 정기연주회 및 현대 오라토리오 시리즈 I

The Ordering of Moses

12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휘 이기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부산시립합창단이 대표적인 현대 오라토리오인 나다니엘 데트의 'The Ordering of Moses'로 관객과 만난다.



소프라노 박은주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현대 오라토리오 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계시를 받아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까지 모세의 상징적 상황을 담고 있는 'The Ordering of Moses'를 한국 초연으로 선보인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앞서 세계 3대 오라토리오라 불리는 헨델 '메시아', 하이든 '천지창조', 멘델스존 '엘리아'를 무대에 올려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The Ordering of Moses'는 풍부하고 감성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특징으로, 이 곡의 작곡자인 나다니엘 데트(R. Nathaniel Dett, 1882~1943)는 19세기 낭만 양식에 흑인영가를 흡수하여 합창 음악, 피아노 조곡(관현악 버전으로도 편곡), 오라토리오 등을 작곡함으로써 그의 작품은 지금도 활발히 연주되고 있다.



카운터테너 장정권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인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가 연주하고 소프라노 박은주, 카운터테너 장정권, 테너 김효종,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이 솔로리스트로 무대에 선다. 여기에 지난해 멘델스존 '엘리아'에서도 함께 호흡을 맞췄던 나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전진)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깊은 울림이 있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테너 김효종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소프라노 박은주는 유럽의 음악잡지 Opern welt가 선정한 2003년 노트라인 베스트 팔렌 주 최고의 소프라노에 이어 2009년 브레멘·함부르크 주 최고의 소프라노로 선정됐으며, 그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다수의 Opera house에서 주역가수로 활동해왔다. 카운터테너 장정권은 스페인 비냐스 국제 콩쿠르 3개 특별상, 런던 헨델 국제 콩쿠르 청중상, 독일 엘리제 마이어 재단 콩쿠르 1위, 독일 DEBUT 콩쿠르 3위, 독일 마리팀 콩쿠르 3위 및 특별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오페라 주역 및 솔로리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테너 김효종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비냐스 콩쿠르 3위 및 3개의 특별상, 독일 뮌헨 보칼 게니알 콩쿠르 2위, 독일 코부르크 알렉산더 지라디 콩쿠르 1위에 입상하고 2012~2022 독일 브레멘 극장의 전속 성악가로 있으며,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하노버 국립극장, 에센 알토 극장,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극장 등 다수 유럽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은 2014 제3회 쾰른 오페라 가수상, 2016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상), 2018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이인선상을 수상하고 2022 독일 주정부가 수여하는 궁정가수(Kammersänger)를 수훈받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12월 6일 금요일 오후 9: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기존 공연시간의 틀을 깬 저녁 9시, 평소 공연장을 찾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가 12월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19년 첫 선을 보인 '심야음악회'는 그동안 실험적인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을 새로운 음악세계로 안내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고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여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의 협연으로, 미국 현대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찰스 아이브스를 비롯 구노, 본 윌리엄스, 쇤베르크 등 현대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첫 곡인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은 관현악 사운드의 입체 음향효과를 탐구하는 선구자적인 작품으로, 우주의 신비에 대한 철학적 명상에 약간의 유머를 곁들인 곡으로 평가 받는다. 이어지는 구노의 '작은 교향곡'은 관악9중주를 위한 흔치 않은 편성으로, 관악기 음색을 조화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노력이 깃들여진 작품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은 한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로망스 형식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조지 메레디스의 시에 영감을 받아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늘을 비상하는 종달새를 선율로 그려낸 작품이다. 협연자 김서현은 2023년 만 14세의 나이로 스위스의 유서 깊은 콩쿠르인 티보르 버르거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고 2021년 이사이 국제음악콩쿠르, 레오니드 코간 국제 바이올린 콩쿠



지휘 백승현



바이올린 김서현 ©Shinjoong Kim

르 우승에 이어, 2022년 미국 오벌린에서 열린 토머스 앤 이본 쿠퍼 국제 콩쿠르에서도 역대 최연소 우승을 기록하며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김서현은 중학생 때 세계적인 지휘자 길버트 버거의 초청으로 헝가리의 패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헝가리 3개 도시에서 공연을 가졌고, 2023년에는 시카고에서 Dame Myra Hess Series로 미국 데뷔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24년에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비롯해 금난새 지휘자의 초청으로 성남시향 및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여러 차례 협연무대를 가졌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인 쇤베르크의 '노투르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음 기법의 쇤베르크의 곡이라 생각할 수 없는 낭만적인 작품으로, 감미로운 선율이 매혹적이며 성스러운 느낌을 준다. 작품명인 '노투르노'는 야상곡을 뜻하는 '녹턴'의 이탈리아어.

부산을 찾아온 국립정동극장 연극시리즈

연극 더 드레서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7일 토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R석 5만 5천원, S석 3만 3천원(11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완성시키는 연극 ‘더 드레서(The Dresser)’가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20년 초연, 2021년 재연을 거쳐 올해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연극 ‘더 드레서’는 특히 송승환 배우가 2011년 ‘갈매기’ 이후 9년 만에 무대에 서는 복귀작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더 드레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극작가 중 한 명으로 영화 ‘피아니스트’, ‘잠수종과 나비’의 각본을 쓴 로널드 하우드의 희곡이 원작이다. 작가의 실제 경험에 착안한 이 작품은 하우드가 영국의 배우 겸 극단주였던 도날드 울핏(Donald Wolfitt)의 셰익스피어 전문 극단에서 5년간 의상담당자로 일하며 겪었던 일들을 모티프로 한다. 1980년 영국 맨체스터 로열 익스체인지 시어터 초연에 이어 웨스트엔드 공연, 이듬해 브로드웨이에 입성했고 1983년 영화(감독 피터 에이츠)로, 2015년에는 BBC에서 TV영화(주연 안소니 홉킨스, 이안 맥켈런)로 리메이크되어 사랑받았다. 한국에서는 극단 춘추가 1984년 김길호(선생님 역), 오현경(노먼 역) 주연으로 공연해 제21회 동아연극상을 수상했다.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영국의 셰익스피어 전문 극단. ‘리어왕’ 공연을 앞둔 무대 뒤, 첫 대사조차 잊어버린 노(老)배우 ‘선생님’과 그의 드레서 ‘노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드레서(Dresser)는 ‘공연 중 연기자의 의상 전환을 돕고 의상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작품 속 드레서 ‘노먼’은 단순히 의상 전달에 그치지 않고 늘 그림자처럼 ‘선생님(Sir)’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지며 헌신을 자처하는 캐릭터로 그려진다. ‘더 드레서’는 ‘관계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선생님’은 관객과의 약속을 위해 폭격



속에서도 227번째 리어왕을 수행하는 의무감 넘치는 배우지만 무대 뒤에선 안하무인으로 생떼를 부리는 노인인 노먼의 대면에 존재한다.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성실하게 보필하는 드레서 ‘노먼’ 역시 때로는 질투와 몽니를 불사하는 과감함을 보인다. ‘더 드레서’는 선명하길 바라는 사회에서 단순하고 명료하게만 답할 수 없는 인간의 다양한 면모와 삶의 복잡성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이번 무대는 뮤지컬 ‘김중옥 찾기’,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금발이 너무해’, ‘형제는 용감했다’, 영화 ‘정직한 후보’, ‘김중옥 찾기’ 등 다수의 작품에서 연출과 극작을 맡은 멀티 플레이어 장유정 연출가가 또 한 번 호흡을 맞춘다. 또, 9살 아역배우로 시작해 59년의 연기 인생을 품은 배우 송승환이 ‘선생님’ 역을 맡고, 상대역인 ‘노먼’에는 무대와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오만석과 김다현이 더블캐스팅되어 찰떡 호흡을 과시한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성을 한껏 북돋아준 (재)부산문화회관의 인기 기획공연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토요일의 ㅋㅋㅋ)’가 다시 한번 어린이들 곁으로 돌아온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는 어린이 관객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시리즈로, 올 상반기 세 차례의 무대를 통해 어린이들이 클래식 공연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로 공연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스크린을 활용한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앙상블 연주와 연극 무대가 어우러지며 어린이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예술적인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제공,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 앙코르 무대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하이라이트를 재미있는 해설, 환상적인 음악과 함께 선보인다. 매년 연말이면 전 세계 무대에 오르는 ‘호두까기 인형’은 독일 작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을 원작으로, 차이콥스키의 웅장한 음악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고전 발레 3대 걸작이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환상적인 스토리에 화려한 무대장치와 아름다운 의상, 각 나라 인형들이 펼치는 다양한 전통춤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해설&바이올린 박소연

이번 무대에서도 명쾌하고 재미있는 해설과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소연이 해설을 맡아 어린이들의 예술적 감성을 일깨워준다. 클래식 앙상블 ‘엘 콰르텟’의 리더로 신진음악회의 등용문인 조선일보 신인음악회를 통해 데뷔한 박소연은 ‘KBS 클래식 오디션’, ‘KBS 문화 책갈피’, ‘KBS 찾아가는 음악회’, ‘예당 아트 티비’ 등 국내 주요 클래식 방송에 출연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클래식 교육과 감상을 위한 다양한 테마의 ‘키즈 클래식’을

기획, 수년간 진행하며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오고 있다.

연주를 맡은 ‘엘 콰르텟(L quartet)’은 풍부한 감정 표현과 섬세한 연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현악사중주단으로 무용, 연극, 미술 등 다채로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실내악 음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24 부산발레시즌 샤이닝 웨이브 Shining wave



일시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16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7일 일요일 오후 3:00

장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좌석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문의 영화의전당 780-6060



2024 시즌 부산오페하우스발레단의 신작발레 ‘샤이닝 웨이브(Shining Wave)’가 11월 15일부터 사흘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선보인다.

부산오페하우스발레단은 부산시가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에 이어 발레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만든 단체로, 발레리나 김주원을 예술감독으로 위촉한 후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현재 18명의 시즌 단원과 10명의 프로젝트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예술감독 김주원은 부산 출신으로, 15년 동안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를 역임했으며, 2006년에는 무용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브누아드 라 당스’에서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하고 2012년에는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꾸준히 창작 작업을 이어 나가며 뛰어난 프로듀싱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주원은 현재 2024시즌 부산오페

라하우스 발레단 예술감독, 서울사이버대학교 부학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늘봄예술학교’ 명예교사, ‘멈춤 프로젝트’ 예술감독 등 다양한 행보를 통해 꾸준히 후학 양성과 무용예술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예술감독 김주원
©박귀섭(BAKI)_EMK엔터테인먼트 제공

부산발레시즌 첫 신작 샤이닝 웨이브 Shining Wave

2024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발레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신작발레 ‘샤이닝 웨이브’는 클래식발레 ‘파키타’와 네오 클래식 창작발레 ‘샤이닝 웨이브’로 구성되어 있다. 클래식발레의 정수를 보여주는 ‘파키타’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에스파냐를 배경으로, 집시 소녀 파키타와 프랑스군 장교 루시앵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줄거리보다도 프랑스풍의 우아함과 이탈리아풍의 활력 넘치는 춤을 적절히 배합하여 춤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으며, 에스파냐풍의 정열적인 느낌과 경쾌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파키타’ 3막에 등장하는 결혼식 장면 중 주역 무용수의 춤과 솔로 바리에이션, 군무 등이 펼쳐진다. 결혼식 장면은 군무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주역과 솔리스트들의 춤도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어 발레단이나 여러 축제에서 시즌의 시작을 알리거나 축하할 때 종종 공연되기에 첫 무대로 적격이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 최초로 ‘주역의 2인무 듀엣’과 ‘에카르테’ 안무를 선보일 예정으로 이 두 신의 안무는 독창적인 안무와 작품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윤전일 지도위원이 맡았다.

‘Shining Wave’는 ‘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의 물결’ 또는 ‘빛을 반사시키는 파도’라는 뜻으로, 특히 발레단의 첫 시즌을 함께하는 무용수들이 ‘Shining Wave’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시인 정영의 연시 8편을 스토리화하여 춤을 그리듯이 보여주는 작품으로,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자 안무가 이정윤과 떠오르는 신예 안무가 박소연이 함께한다. 이정윤은 한국무용의 섬세한 움직임을 2막의 창의적인 안무에 가미하였으며 박소연은 대담하고 독특한 미적 감각으로 그녀만의 신선한 해석을 더해 무대를 완성한다.

신진 안무가, 제작진이 창조한 새로운 물결

출연진으로는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발레단의 신임 주역 무용수 홍주연, 정혜윤, 신승우가 윤별, 이은수, 박지수, 전윤선 등과 함께 주인공으로 나선다. 음악의 작곡과 편곡은 세계적인 재즈 레이블 ECM이 선택한 뮤지션이자 색소포니스트 겸 작곡가로 잘 알려진 손성제가 맡았다. 8개의 연시를 음악에 담아내어 'Shining Wave'의 서사와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그의 독창적인 음악적 해석과 감각은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어우러져 관객들의 몰입감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김주원 예술감독은 “이번 샤이닝 웨이브는 위로와 기도, 그리고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연”이라며 “부산은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1막 클래식 발레에서는 전통성을, 2막 네오클래식 창작 발레에서는 감동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오페라하우스발레단은 12월 3일과 4일, 시즌 두 번째 무대인 해설이 있는 갈라 콘서트 '화이트 발레 소네트 (White Ballet Sonnet)'를 선보인다.

2024 제12회 부산소극장 연극페스티벌



11월 1일(금)-16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지역 8개 소극장

전석 3만원

부산소극장연극협의회

723-2013, www.blta.co.kr

부산의 가을을 연극으로 물들인 2024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이 11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은 부산소극장연극협의회가 매년 부산지역의 소극장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열어온 무대로, 올해는 협의회 소속단체 8개 소극장에서 8개 작품이 선보인다. 부산의 소극장 연극은 예전부터 실험과 창작정신의 산실로 대한민국 연극발전에 일조해왔으며, 많은 연기와 연출가, 스태프를 배출하면서 부산 연극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올해 페스티벌에서는 지난 8월 개최된 '2024년 제9회 여름창작 낭독무대'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당신의 꽃'을 무대화한 드렁큰생쥐터 등 부산 극단 6개 팀과 서울, 통영 극단 2개팀이 참가,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극단 새개탐사 **친절한 고르스끼씨**

11월 1일(금)-2일(토) 열리아트홀

'사회와 개인을 탐사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서울극단 새개탐사의 2인극 '친절한 고르스끼씨'. 작가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간 닐 암스트롱의 고독과 두려움을 이순신이라는 지구 반대편의 과거 영웅과 가업을 버리고 도망친 미스터 김을 연결하여 동서고금을 횡단하는 과감한 재치를 선보인다. 인류 최초 달 착륙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세계사에 터닝포인트가 된 달착륙과 6·25전쟁, 그리고 한국사의 영원한 영웅 이순신 장군, 얽히고설킨 그들의 이야기 속에 집에 가지 못하는 미스터 김이 함께 하면서 진정한 사과와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친절한 고르스끼씨'는 지난해 열린 '제23회 월드 2인극 페스티벌'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 작 | 기히라 • 연출 | 박혜선 • 출연 | 강현우, 최승주



김윤지연구소 **시시콜콜한 이야기**

11월 6일(수)-8일(금) 용천소극장

과거의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사람이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음악을 듣고 커피를 마시고 물고기에게 밥을 주며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 보려고 하지만 자신이 겪었던 폭력에 대한 기억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끔찍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배우 김예빈의 1인극 '시시콜콜한 이야기'.

• 작, 연출 | 권상우



극단 막 **흑백다방**

11월 7일(목)-9일(토) 공간소극장

2014년 초연 후 각종 연극제의 상을 휩쓸며 화제를 일으킨 연극 '흑백다방'. 오래된 다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심리상담을 해주는 전직 경찰이었던 다방주인과 그를 찾아온 남자. 가해자를 20년만에 찾아온 피해자는 서로의 아픈 기억을 들추며 진실공방을 벌인다.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로 시작된 이 둘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아픔으로 나아가며 한 순간도 눈 돌릴 틈 없이 꽉 채운 무대를 선보인다. 연극 '흑백다방'은 부산 남포동을 배경으로 1980년대 민주화시절 발생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2인극 특유의 뜨거운 에너지와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는 무대이다.

• 작 | 차현석 • 연출 | 최치환 • 출연 | 정성호, 윤상호



드렁큰씨어터 **당신의 꽃**

11월 8일(금)-10일(일) 레몬트리소극장

'2024년 제9회 여름창작 낭독무대'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당신의 꽃'을 온전한 무대로 만날 수 있는 드렁큰씨어터의 무대. 부산소극장 연극협의회가 주최하는 '여름창작 낭독무대'는 귀로 듣는 연극으로, 창작희곡 발표 기회를 넓히고, 공연 비수기인 여름 소극장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열리고 있다.

작가 매실은 어머니가 어릴 때 살았던 집에 와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문학잡지사에서 일하는 해진이 매실에게 원고를 받기 위해 찾아오고 대중교통이 끊겨버리면서 매실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된다. 매실의 시에는 '나'와 상대방을 가리키는 '당산'이란 표현이 참 많다. 매실이 말할길 외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했는데, 각자의 신념과 행동으로 치열하게 그 시절을 살았지만 독립운동이란 참 녹록치 않았다고...

- 작, 연출 | 윤준기
- 출연 | 손남숙, 황자미, 배문수, 이재찬, 김혜원, 김인우



부두연극단 **그라지마소**

11월 12일(화)-14일(목) 액터스소극장

현실 상황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소외된 노인들이 서로 통하는 상대를 만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존재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발칙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연극 '그라지마소'. 크리스마스 이브 늦은 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백화점에 남겨진 늙은 수위와 청소부는 자신들의 소외된 삶을 반추하며 그들의 인생을 서로에게 털어 놓는다. 그러다 서로 마음이 통한 두 남녀는 자본주의 진열장인 백화점의 상품들을 헤집어 놓고 춤을 추며 난장판을 만드는데... 작품은 말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접촉으로 두 사람이 하나되어 가는 과정을 발칙한 퍼포먼스로 보여주며 감동을 끌어낸다. 제목인 '그라지마소'는 크리스마스를 빗대어 말한 경상도식 은어.

- 원작 | 페터 트루니
- 각색, 번안 | 김문홍, 이수경
- 연출 | 이성규
- 출연 | 박호천, 김혜정



극단 아센 **기막힌 꿈**

11월 13일(수)-15일(금) 하늘바람소극장

로또 당첨을 두고 친구들간에 스스럼없이 진행되는 탐욕과 욕망, 그 속에 펼쳐지는 지독히 외로운 현대인의 웃지 못할 슬픈 자화상을 그린 연극 '기막힌 꿈'.



성우, 준승, 성호는 비루한 인생 속에서도 돈독한 우정으로 뭉친 갓보들이다. 포커판의 개평으로 구입한 로또가 당첨되어 당황스러운 순진한 성호, 그 로또의 주인은 바로 개평을 준 자기라고 설치며 나서는 준승, 그 곳에서 은밀하게 로또를 가로챈 계락을 세우는 치밀한 성우. 그리고 또 한 사람, 치명적인 매력의 그녀, 마담. 서서히 밝혀지는 그녀와 그들의 관계, 과연, 로또를 손에 쥔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 원작 | 데이비드 마멧
- 각색/재구성 | 호민
- 예술감독 | 구보경
- 출연 | 구민주, 양성우, 송준승, 박성호

극단 박수골 **블루도그스**

11월 14일(목)-15일(금) 나다소극장

통영 연극의 중심이자 지역의 문화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극단 박수골의 '블루도그스'. 극단 박수골의 대표 레퍼토리로, 2012년 연극으로 첫 선을 보인 후 2016년부터는 음악을 더한 음악극으로 변주하여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우울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블루(bleu)'와 개들이라는 뜻의 '도그스(dogs)'의 합성어로, 개장 안에 갇힌 다섯 마리 개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의 억눌린 상황을 묘사한 부조리극이다. 인간 사회의 어두운 이면, 계층간 갈등, 소외된 감정 등을 유쾌하게 풍자한 작품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이탈리아 셀레연극축제에서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오가는 은유와 평행이 가득한 놀라운 현실극이라는 평가와 함께 최고작품상과 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작 | 선광현
- 연출 | 장창석
- 출연 | 박승규, 이규성, 윤선정, 박진수, 조준희



극단 맥 **강부자! 시집보내기**

11월 14일(목)-16일(토) 소극장6번출구

인간의 위선과 탐욕에 대한 유틘트 넘치는 풍자극, 프랑스의 위대한 희극작가 몰리에르의 '강제결혼'을 각색한 '강부자! 시집보내기'.

돈많은 자린고비 강부자는 젊고 건장한 도지식과의 결혼을 결심한다. 도지식은 방탕하고 바람기 많은 청년으로 결혼 후에도 젊고 예쁜 나애리와의 만남을 이어가려 한다. 막상 결혼하려 하니 마음이 불편한 강부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는지 주변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박식한 학자인 방그레와 마취리에게 묻고, 점쟁이에게 미래를 점쳐보는 강부자. 과연 강부자는 얻고자 하는 답을 찾게 될까?

- 연출 | 이정남
- 출연 | 김지현, 조영미, 이태규, 이민성, 박선우



해석을 요구하는 성긴 텍스트와 춤의 순수성을 지향한 무대

국립 현대무용단 지역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
<수선되는 밤> + <정글>

• 이상현 춤 비평가

국립 현대무용단이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안무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동시대 사회와 역사, 그리고 사람에 관한 주제 의식을 담은 현대무용 레퍼토리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 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을 기획했다. 부산, 세종, 광주, 대구를 순회하는 첫 공연이 지난 9월 21일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 올랐다. 박재현 안무 <수선되는 밤>과 김성용 안무 <정글>이었다. 많은 무용계 인사와 일반 관객이 극장을 찾았다. 부산에서 국립 현대무용단 공연을 보기 힘들고, 같은 무대에 오르는 박재현 작품에 대한 기대도 컸기 때문이다.

수선되는 밤

박재현은 이 작품이 '난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다만, 난민 이야기는 기본 틀이며 난민들이 갈망하는 정주할 수 있는 평화의 땅,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이야기를 확대했다고 한다. 난민은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 채 치명적 불안을 체화한 존재들이어서 자신들이 평화로운 이상향에 정주할 것을 기대한다.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혼돈과 불안을 견디게 하는 힘은 기대와 가능성이다. 유토피아는 난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꿈꾸는, 갈등이 해소된 평화로운 상태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능동적 삶의 태도를 통해 유토피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선(垂線)은 일정한 직선이나 평면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을 의미한다'라고 의미를 한정해 놓았지만, 정작 작품에서는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수선(垂線)이며, 수동적 태도를 고쳐 나가는 수선(修繕)이기도 하다.

<수선되는 밤>은 낮(수동적 삶) 동안의 혼돈, 불안한 여정이 제자리(유토피아)를 찾아 바로 서 능동이 되는 밤이다. 무대에는 비스듬히 서 있는 나무들과 꿈틀거리는 애벌레, 속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알 수 없는 텐트가 어지럽게 배치되어 있다. 텐트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

다. 마치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 놓인 삶의 가변적 상황처럼 말이다. 하수 위쪽에 매달린 반투명 판 안의 나무 같은 물체의 정체는 후반부에 가서야 알게 되는데, 그곳에서 떨어지는 물이 만든 수선(水線)을 통해 시각, 청각적으로 수선(垂線)을 느끼게 한다. 어느 하나 처음부터 분명한 것이 없으며, 스멀거리는 스모그 때문에 시야는 흐리다. 모호한 이미지는 기준 없는 토대처럼 보인다. 기준 없는 토대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현실화하지 못한 가능성은 모호하고 불안하다. 이 작품이 유토피아라는 현실화하지 못한 가능성의 장소



수선되는 밤 © 국립현대무용단(자기 형승택)

를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미장센을 이렇게 짠 것처럼 보인다. 만약, 유토피아가 뚜렷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현실이 되면서 가능성이 소멸한다.

<수선되는 밤>의 끝은 밤이 아니었다. 낮의 혼란이 잠잠해졌다고 해도 밤에도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남아있다. 밤을 건디는 힘은 밤이 새벽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이것이 삶의 부조리와 불안을 긍정하고,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축제를 시작할 힘의 원천이다. 여명이 찾아오면 축제가 시작된다. 축제의 끝에 유토피아의 문이 열릴지는 미지수지만, 축제를 시작한 마당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유토피아는 결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낮선 이미지와 파편화한 상징으로 성기게 짠 박재현의 무대 미장센은 이해보다는 해석이 필요하다. 관객이 느끼는 모호함과 혼돈은 안무자가 치밀하게 구성한 것이다. 이런 세계에 동의하지 않아도 관객의 해석이 보태져야 이 작품은 비로소 완성된다. <수선되는 밤>은 파편적 이미지를 던지는 작품이라기보다 해석의 장에 펼친 성긴 텍스트인 셈이다.

정글

정글은 몸의 본능적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곳이다. 김성용은 자신이 개발한 비정형적 움직임 리서치를 통해 끌어낸 창의적인 움직임들로 작품을 구성했다고 한다. 그래서 <정글>은 순수한 이미지의 향연에 가깝다. 무대에서 춤추는 무용수나 무용에 익숙한 관객은 <정글>의 순수함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객은 서사 없이 이어지는 움직임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안무자가 말한 ‘원근적 시점’이다. 서사 없이 이어지는 움직임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서사가 있는 무대에서 일어나는 무용수의 움직임은 관객의 시점(시선)에 수렴되면서 재확산하지 못한 채 소멸한다. 원근적 시



정글 © 박재현무용단

점은 소실점이 있다. 소실점은 수렴과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념적이며 임의적인 지점이다. <정글>에서 원근적 원리는 무대 안에서 작동한다. 무용수의 움직임은 다른 무용수의 시점에 수렴되고, 수렴된 움직임은 다시 무용수의 몸에서 확산한다. 그래서 움직임이 관객의 시점에서 소멸하지 않고, 서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었다. 안무자가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펼쳐 놓은 것도 무대 안에서 작동하는 원근적 시점 때문이다. 작품의 모티브는 외부 세계에서 가져오지 않았고, 춤 내부에서 끌어낸 것이다. ‘무용수 개인의 감각을 깨우고, 상호 간 반응을 탐색하며 움직임의 변화와 확장을 만들어 낸다.’라는 (팸플릿) 글에 원근적 시점으로 들여다보았다는 안무자의 의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추구하는 것은 ‘목적 없는 목적’이라는 춤(움직임)의 순수성이다.

<수선되는 밤>과 <정글>은 여러 면에서 대비된다. <수선되는 밤>은 서사가 있고, 많은 상징 장치를 이용해 하나의 세계를 구축했다. 반면 <정글>은 서사가 없고, 무대는 단순하다. <정글>에서 무용수는 움직임을 수렴하고 확산하는 독자적 존재로 각각의 세계이다. 익숙한 것은 이미 동시대 예술 가치를 잃은 상태다. 아감벤은 동시대성을 ‘이점(disjunction)과 시대착오를 통해 맺는 시대와의 특수한 관계’라고 했다. 시대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때 동시대성이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특정 시대와 잘 맞아떨어진다면 그 시대를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다. 관객은 낯설고 심지어 불편하기까지 한 작품을 보면서 시대와 거리를 둔 예술의 동시대성을 감지하게 된다. 이것이 <코레오 커넥션>의 두 작품이 남긴 의미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전래동화
뮤지컬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일 시 | 10월 22일(화)-12월 6일(금) 평일 오전
10:30(단체공연),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일-월요일 휴관) **사랑채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린이 전용극장인 사랑채극장에서 펼쳐지는 전래동화 뮤지컬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흑 떼러 갔다가 흑 붙었다는 속담의 유래인 우리나라 전래동화 ‘흑부리 영감’ 설화를 원작으로 하는 어린이 뮤지컬로, 무거운 흑을 달고 살지만 항상 행복한 흑부리 영감과 심술많은 심술부리 영감의 이야기를 통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라온다는 교훈을 어린이 관객들에게 전한다.
특히 주머니 받거니 하는 신명나는 우리 가락이 어린이들의 흥을 돋운다.

포레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포레의 저녁 만찬

Soirée Gabriel Fauré

일 시 | 11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3천원(학생 및 65세 이상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2024년 포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부산의 대표적인 클래식 공연기획사인 아트뱅크코리아와 국내 최고 연주자들이 마련한 기념음악회 ‘포레의 저녁 만찬’.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의 위대한 작곡가 포레의 주옥같은 가곡과 실내악 연주를 통해 프랑스 음악의 우아하면서도 감동적인 선율을 만날 수 있다.

- 해설/박유미
- 피아노/권준, 박정희
- 바이올린/김도경
- 첼로/정준수
- 소프라노/박성희
- 메조소프라노/한현미
- 테너/조윤환
- 바리톤/지광윤
- 반주/안준희, 김현정

창작오페라 **‘페스트’**

일 시 |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11월 1일
금요일 오후 2:00, 7:3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루체데음악극연구소 513-1009



참신한 기획과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루체데음악극연구소의 창작 오페라 ‘페스트’.

오페라 ‘페스트’는 카뮈의 동명 소설을 배경으로 창작된 오페라로, 실존주의적 철학을 예술적으로 무대화하여 카뮈보다 더 카뮈답게 무대에 그려낸다.

- 작곡·예술감독/백현주
- 대본·연출/김지용
- 지휘·음악감독/전진
- 출연/ 김종표, 이태영, 구민영, 박찬, 최모세, 하태선, 왕기현
- 연주/유코 오케스트라
- 합창/루체데 오페라 앙상블

김지운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11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김지운 010-2886-3947



화려한 테크닉과 따뜻한 음색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운 독주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이스트만 음악대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지운은 귀국 후 더뉴앙상블과의 협연무대를 시작으로 부산과 서울에서 가진 귀국독주회에서 관객들의 찬사를 이끌어내며 계속해서 솔로 주자로서 비르투오스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지운은 미국 Rochester Philharmonic Orchestra의 객원단원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에 대한 열정을 키웠으며, 실내악 연주자로 실내악에 대한 탐구와 열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의 ‘3개의 로망스’를 비롯하여 브람스, 생상스, 이차이, 드뷔시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강형은

김혜선 피아노 리사이틀 **Schubertiade**

일 시 | 11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아인클랑피아노앙상블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혜선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도독, 만하임 국립음대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 점으로 졸업하고 이탈리아 Tadini 국제콩쿠르, Padova 국제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한 김혜선은 국내외 독주회 및 협연무대를 가져왔으며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 선정 초청연주를 비롯하여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났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의 ‘12개의 독일 무곡’과 ‘악흥의 순간’, ‘피아노 소나타 작품 959’를 들려준다.

제66회 UKO 정기연주회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푸치니 오페라 하이라이트

일 시 | 11월 3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UKO 010-5468-4658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선오케스트라인 유니타이트 코리아안 오케스트라(UKO)가 작곡가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푸치니는 사실주의 오페라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이자 이탈리아 전통 오페라의 마지막 세대로, 오늘날에도 그의 대표작들이 전 세계 무대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박지운이 지휘하고 실력 있는 성악가들이 출연, ‘나비부인’, ‘라보엠’, ‘토스카’, ‘잔니 스키키’, ‘투란도트’ 등 푸치니 오페라 하이라이트 무대로 꾸민다.

- 지휘/박지운
- 소프라노/조지영, 오예은, 김민정
- 테너/김지호, 이신범
- 바리톤/안세범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6회 정기연주회
나의 생애로부터 II

일 시 | 11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010-9336-2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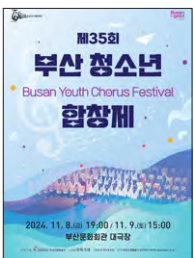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파워풀하면서 따뜻하고 호소력 있는 연주를 펼치는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 중인 최재혁 작곡가의 창작곡 '사랑의 편지' 초연무대를 시작으로 스메타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현악사중주를 현악 오케스트라 곡으로 재해석한 스메타나 '나의 생애로부터', 그리고 스메타나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48'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 리더/박경희
- 해설, 첼로/전명희
- 지휘, 비올라/안용주
- 작곡/최재혁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35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일 시 |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00, 9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합창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매년 마련하는 '제35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올해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하여 11개 합창단이 출연하며, 소프라노 이은경, 이연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특별 출연한다. 특히 공연 마지막에는 청소년들이 합창으로 서로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전체 출연팀이 출연하는 연합합창 무대가 마련된다.

8일(금) 출연팀

사직여자중학교합창단(지휘, 반주/강미순)
정관소년소녀합창단(지휘/차윤희, 반주/최지선)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제42회 정기연주회 **오르다**

일 시 | 11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510-1739



미래의 젊은 국악인을 양성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와 42번째 정기연주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는 지난 1982년 창설된 후 한국의 전통음악을 계승, 발전하고 새로운 한국의 음악문화를 창도해 나가고 있다.

'오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여민락'의 현악 편성인 '오운개서조', 흥을 돋우는 '뽕파전' 등 전통 위주의 곡으로 구성된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아쟁 협주곡 '신맛이 굿', 정가와 국악관현악 '복두칠성', 해금 협주곡 'Verses', 수롱음 계락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폭포수 아래'를 들려준다.

동래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현성, 반주/박슬기, 특별출연/소프라노 이은경)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권영기, 반주/김민희)

부산진구라운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성배, 반주/정고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천경필, 반주/김강운)

9일(토) 출연팀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태경, 반주/김하림)

금정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우원석, 반주/엄혜경)

조이주니어합창단(지휘/김혜민, 반주/이주하, 특별출연/소프라노 이연진)

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철수, 반주/박은정)

영도구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채범석, 반주/김보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천경필, 반주/김강운)



치유와 위안의 음악 **THE NEW AGE**

일 시 |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3만3천원
문 의 | ㈜이지클래식 예술기획 0507-1349-6851



행복을 위해 매일 견디고 있는 당신을 위하여 이지클래식이 마련한 오늘의 선물 같은 시간 '더 뉴 에이지(The New Age)'.

실력있는 청년 음악가들로 구성된 이지클래식의 연주로 대표적인 뉴에이지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든 연주자의 진심을 담아낸 메시지를 듣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통해 일상 속 특별함을 관객과 함께 나눈다.

- 바이올린/오혜림
- 비올라/조우태
- 첼로/김반석
- 피아노/권은지
- 플루트/김은주
- 클라리넷/황은진
- 퍼커션/안다영

제9회 유엔평화기념관합창단 정기연주회
Turn Toward Busan 전야 음악회

일 시 |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유엔평화기념관합창단 010-2829-2645



11월 11일 유엔군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Turn Toward Busan(턴 투워드 부산)' 행사를 앞두고 유엔평화기념관합창단이 마련하는 전야 음악회.

유엔평화기념관합창단은 UN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평화와 자유'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달하고자 지난 2015년 창단된 후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참여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첸투스 챔버오케스트라와 유엔아이(You & I)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소프라노 양근화,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테너 전병호, 바리톤 강경원이 출연, 모차르트 '레퀴엠'으로 전 세계와 하나되는 순간을 함께 나눈다.

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23회 정기연주회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with 심준호

일 시 |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해운대구청 749-6045
오케스트라 010-6266-1946



음악을 사랑하는 해운대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난 2000년 10월 창단한 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정기 연주회 및 재능 나눔 연주회 등 크고 작은 여러 연주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음악적 정서 함양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 초청받아 문화사절단으로서 민간외교에도 힘쓰고 있다. 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현재는 음악과 함께 꿈을 키워나갈 신규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이 지휘하고 현재 한

국 음악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첼리스트로 활약 중인 심준호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주페의 '빈의 아침, 낮과 밤' 서곡을 시작으로 모차르트 '교향곡 제40번' 중 1악장, 그리고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전 악장을 들려준다.

협연자 심준호는 뉴시스 뮤지컬 국제콩쿠르에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연주하는 진정한 음악가'라는 극찬을 받으며 한국인 최초 만장일치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첼리스트를 역임한 그는 그동안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베를린 용에필하모닉, 베오그라드 RTS 방송교향악단, 노르웨이 방송교향악단 등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비롯해 다양한 무대에서 전방위 플레이어로 활동 중이다.

- 지휘/정우영
- 첼로/심준호
- 연주/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2024 턴 투워드 부산 UN 평화 음악회

일 시 |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턴 투워드 부산'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UN 평화 음악회'.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은 참전 22개국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돌아서 묵념을 하며 UN군 전몰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는 행사로, 지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 씨가 처음 제안한 이후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리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청년평화오케스트라와 하모니합창단, 소프라노 설은경, 바리톤 유용준이 출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 사회/박은경
- 지휘/이동신
- 소프라노/설은경
- 바리톤/유용준
- 연주/부산청년평화오케스트라
- 합창/하모니합창단

제26회 남구문화예술회 음악회 정기연주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일 시 |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부산남구문화예술회 010-9287-6350



남구문화예술회 음악회 회장으로 있는 테너 강학운을 비롯하여 남구 지역의 음악인들로 구성된 남구문화예술회 음악회 정기연주회.

올해로 26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지역 성악가들과 무지카앙상블, 청솔합창단이 출연, 국내외 가곡 및 민요, 오페라 아리아, 영화주제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바이올린/박경희
- 첼로/전명희
- 소프라노/박미경, 백규원, 김정은
- 테너/강학운, 홍지형
- 바리톤/하병욱
- 피아노/김은희, 윤민하
- 합창/청솔합창단(단장/박순희, 지휘/강학운, 반주/김은희)

박찬식 타악기 독주회

일 시 |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박찬식 010-2766-3246



탄탄한 기본기와 섬세한 터치감을 가진 퍼커셔니스트 박찬식 독주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한 박찬식은 재학 시절 전액 장학금 및 다수의 장

학금을 수혜받았으며,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 단원을 역임하고 경산시립교향악단 및 오페라 앙상블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찬식은 현재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함덕고등학교 음악과에 출강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건축가이자 작곡가였던 크세나 키스의 대표적인 솔로 타악기 작품인 'Rebonds B'를 비롯하여 마손의 'Prím', 이그나토비치의 'Toccatá' 등 다양한 솔로곡을 통해 타악의 매력을 전한다.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독창회 사랑의 노래

일 시 |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Kongnamul 010-7155-1779



러시아 모스크바 현지 정통 유학파로, 차이콥스키 음악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러시아가곡연구회, 한국가곡연구회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독창회.

강희영은 F.Cilea 국제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고 독일 자르브뤼켄 주립극장 오페라 합창단원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국립오페라단을 비롯하여 다수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 활동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페인 민요를 기반으로 한 파야의 7개 곡 중 동양적 정서의 '자장가'를 비롯해 포레의 '사랑의 꿈', '사랑의 노래', 프랑스의 '두 개의 노래', 차이콥스키의 '왜' 등 낭만적 사랑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서혜리
- 비올라/박지수
- 해설/김윤선

성악가들이 부르는 인기가요&뮤지컬 콘서트

일 시 |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문 의 | (사)부산문화 1600-1803



아름다운 우리가요와 뮤지컬 넘버를 실력있는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 '성악가들이 부르는 인기가요&뮤지컬 콘서트' 전문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노연정의 연출로 꾸며지는 멋진 무대에서 관객들이 좋아하는 인기가요와 뮤지컬 명곡으로 가을밤,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연출/노연정
- 특별출연/국악인 이소정
- 소프라노/박현숙, 변향숙, 조현지, 박나래
- 테너/김준연, 윤석, 이태흠
- 베이스바리톤/박순기
- 피아노/이정원

2024 대학교향악축제

일 시 | 11월 17일(일), 19일(화), 20일(수), 23일(토), 2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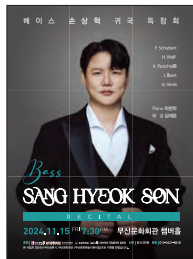
지역 예술대학이 만드는 열정의 하모니 '2024 대학교향악축제'.

청년 예술인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작된 무대로, 부산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지역 대학의 요람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다.

일정
17일(일) 오후 5:00 동아대학교(지휘/조용민)
19일(화) 오후 7:30 동의대학교(지휘/윤상운)
20일(수) 오후 7:30 인제대학교(지휘/정인혁)
23일(토) 오후 5:00 경성대학교(지휘/최혁재)
24일(일) 오후 5:00 부산대학교(지휘/김진연)

베이스 손상혁 귀국 독창회

일 시 |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손상혁 010-5421-0618



'테너의 열정과 소프라노의 유연함을 가진 보기도문 베이스라는 찬사를 받은 베이스 손상혁의 귀국 독창회.'

경성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피아첸차 G. Nicolini 국립음악원 석사과정, 파르마 왕립극장 베르디 아카데미 오페라전문 최고연주자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손상혁은 G. Nicolini 국립음악원 재학 중 토스카니니 국제콩쿠르 2등, 카푸칠리 국제콩쿠르 특별상, 알프레도 자코모티 국제콩쿠르 3등 등 다양한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했다. 2020년 파르마 왕립극장 베르디 아카데미에서는 해당시즌 유일한 한국인으로 합격했으며, 귀국 후에는 오페라 가수 및 전문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이현아
- 해설/김재준

강소연 바이올린 독주회 Dos : Encuentro

일 시 |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강소연 010-2107-8407



탱고양상블 '친친탱고' 활동을 통해 탱고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탱고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강소연 독주회.

'Encuentro(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린과 반도네온, 기타, 피아노의 듀오 편성을 중심으로 트리오, 콰르텟 편성까지 다양한 편성을 통해 탱고 바이올린의 매력을 선사한다.

특히 누에보 탱고의 창시자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곡부터 김종완 작곡가의 새로운 탱고 음악까지, 다양한 탱고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희로애락이 담긴 탱고 음악을 들려준다.

- 반도네온/김종완
- 클래식기타/김경태
- 피아노/이안나

강수이 비올라 리사이틀

일 시 |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깊이 있는 해석과 탄탄한 연주가 돋보이는 비올리스트 강수이 독주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5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연주자과정과 석사과정을 마친 강수이는 일찍이 부산시향과의 협연을 비롯하여 부산음협콩쿠르, 한국음악콩쿠르, 서울바로크합주단 콩쿠르, 하이든 국제콩쿠르, 뉴욕 국제음악콩쿠르에 입상하여 그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졸업 후 뉴욕 카네기홀에서의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강수이는 서울오케스트라 부수석을 역임했으며, 현재 에델 현악사중주단 멤버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피아노/심하정
- 클라리넷/유지환
- 비올라/서주영, 이현준, 김지수

멜로매니아 제3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멜로매니아 010-3885-6600, 010-9692-3973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남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뒤늦게 성악을 공부하며 새롭게 음악인생을 시작한 멜로매니아 단원들은 전문성악가 못지

않은 실력과 음악사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멜로매니아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친근한 가곡과 아리아를 들려준다.

- 바리톤/한성권, 배용, 배태균, 김성홍, 민정식, 강문중
- 테너/송은섭, 석동호
- 피아노/정소연
- 멜로매니아양상블/바이올린 우소라, 이현재, 비올라 윤솔섭, 첼로 우리라, 오보에 최진
- 바리톤테너/박광하

2024년도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사업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일 시 |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대학생들의 창작능력을 향상시키고 졸업 후 예술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의 장으로 마련하는 2024년도 대학생 작품 제작 참여 지원사업으로 선보이는 '코지 판 투테'.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의 대학생들이 직접 오페라 제작에 참여,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박해산
- 연출/박용민
- 예술감독/권수빈
- 피아노/윤정원
- 출연/전어진, 안정민, 최서영, 박정훈, 서진원, 김민준(22일), 박예은, 이연주, 김주연, 오창석, 김영수, 최부경(23일)

부산대학교 **효원클래식기타연구회**
창립 50주년 기념연주회

일 시 |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손장희 010-7540-1652



1974년 10월 4일 창립하여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부산대학교 효원클래식기타연구회의 창립 50주년 기념무대.

1부 무대에서는 필기타 앙상블의 합주를 시작으로 50기 조민체의 '가짜탱고', 15기 신장호의 '알함브라궁전의 추억', 8기 조영갑, 박애림 부부의 '슈베르트 즉흥곡'과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기타앙상블(BGE)의 합주무대가 펼쳐진다. 2부에서는 26기 이승은, 28기 임기덕의 대금·기타의 콜라보 무대에 이어 44기 유동훈, 50기 조민체의 카롤리 '듀오 사장조', 19기 고석호, 22기 박성동, 나병직, 23기 추화진의 4중주, 그리고 효원클래식기타연구회가 배출한 최고의 기타리스트 19기 배광수의 독주에 이어 마지막 무대로 메인합주가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9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24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일 시 |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한국음악을 이끌어 나갈 젊은 국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 협연의 밤.

오디션을 거쳐 합격한 7명의 전공자들이 부지휘자 김경수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무대를 갖는다.

- 지휘/김경수(부지휘자)
- 가야금/장원지(경북예고 1학년)
- 거문고/유현지(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2학년)
- 가야금/김서민(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
- 피리/박수빈(부산대 한국음악학과 4학년)
- 대금/이규원(경북대 국악학과 대학원)
- 아쟁/조성준(부산대 한국음악학과 4학년)
- 거문고/황진호(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1학년)

배우 강석우 **렉처콘서트 내 마음의歌曲**

일 시 |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A석 6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문 의 | JB아트컴퍼니 010-3592-9002, 010-2545-4939



클래식 애호가이자 재치있는 해설과 진행으로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배우 강석우의 렉처콘서트 '내 마음의 가곡'.

다정한 목소리와 특유의 감성으로 사랑받은 강석우는 부산 출신으로, 1978년 영화 '여수', 1982년 드라마 '보통사람들'로 데뷔한 후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클래식 애호가로, 지난 2015년 9월부터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진행을 맡아 클래식 프로그램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며, 방송 기간 내내 솔한 화제를 날기도 했다. 현재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진행을 맡아 클래식 전도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가 살아온 이야기와 클래식음악을 엮은 책 '강석우의 청

춘 클래식', '아름다운 당신에게 1, 2'를 발간했다. 강석우는 특히 우리 정서와 감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2016년부터 직접 가곡을 작사, 작곡하여 그동안 '4월의 숲속'과 '내 마음은 왈츠', '시간의 정원에서' 등 11곡의 가곡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휘자 백원석의 부산오페스포니앙상블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맑고 아름다운 미색의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를 비롯 소프라노 고예정, 바리톤 송기창, 테너 김준연 등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 강석우의 진행으로 자신의 작품세계와 가곡 이야기를 청중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유튜브 조회수 17만건을 기록한 '내 마음의 왈츠', 오스트리아 빈 여행 중 베토벤을 떠올리며 만든 '그날의 그 바람은 아닐지라도', 영화 '겨울 나그네'로 인연을 맺은 고(故) 최인호 작가의 시에 멜로디를 붙인 '밤눈' 등 일상 속 소소한 경험과 감정을 담아 작곡한 그의 가곡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4월의 숲속, 그리움 조차, 그날의 그 바람은 아닐지라도, 그대의 찬가, 정녕 그리운 것은, 미시령, 시간의 정원에서, 밤눈, 가을 그리고 겨울, 내 마음은 왈츠 등

이은호 바순 콰르텟 연주회

일 시 |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마에스트로 컴퍼니 02-525-2761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이자 뷔에르 앙상블 멤버, 트로스트 바순 앙상블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바순리스트 이은호와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시명운, 비올리스트 황여진, 첼리스트 이일세로 구성된 이은호 바순 콰르텟의 무대.

이은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 중 도독, 원한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등을 최고 점수로 졸업하고 제7회 이탈리아 로시니 바순 국제콩쿠르 2위 단독입상, 제53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제3회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 목관오중주 부문 우승(뷔에르 앙상블)을 차지한 바 있다.

- 바순/이은호
- 바이올린/시명운
- 비올라/황여진
- 첼로/이일세

부산시민회관

제5회 고신클라비어 정기연주회
The Best of Opera

일 시 |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고신클라비어 010-5286-0908



고신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전공 졸업생들로 구성된 고신클라비어 정기 연주회. 고신클라비어는 2020년 1월 창단된 후 매년 다양한 주제가 있는 정기 연주회를 통해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The Best of Opera'라는 주제로, '피가로의 결혼', '세빌리아의 이발사', '라보엠', '돈 조반니' 등 유명 오페라 서곡 및 아리아 중심으로 솔로부터 4hands, 성악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 연주/최선경&장진이, 김현정, 이수빈&이윤정, 김인형, 조예림, 최어진, 이현정&최서우, 윤선혜, 강현아&조성희
- 소프라노/박연경 • 베이스바리톤/양재원

황성훈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황성훈 독주회.

세계적 권위의 메이저 콩쿠르를 휩쓸며 총 41개의 국제콩쿠르에 입상하고 10개의 특별상을 거머진 황성훈은 그동안 프라흐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Orquestra de Granada, 듀이스부르크 심포니 등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Busoni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Grosseto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Wennigsen 음악 페스티벌 등에서 연주했다. 황성훈은 Sviatoslav Richter 국제 피아노 콩쿠르, G-Clef 국제 음악 콩쿠르 예술감독으로 활약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크리아빈 '5개의 전주곡 작품 16'을 비롯하여 모차르트와 쇼팽, 바흐-부조니, 파야의 곡을 들려준다.

뮤지컬 최고다 호기심딱지
뽕뽕 이야기 속으로

일 시 | 11월 9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1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6만6천원, S석 4만4천원
문 의 | 숨비 Lab 1522-7176



EBS 교육방송의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최고다! 호기심딱지'를 뮤지컬로 제작한 '최고다! 호기심딱지' 시즌 두 번째 무대.

이번 무대는 놀면서 배우는 생활안전 편으로, 보호장비 없이 킥보드를 타다가 다리를 다친 신데렐라와 사과를 먹고 긴 잠에서 깨어난 백설공주를 꾀는 바이러스 백작, 몸을 녹이기 위해 성냥을 켜다가 불을 낸 성냥팔이 소녀, 그리고 사라진 오즈의 마법사 등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동화 속 이야기와 방송 에피소드를 결합시켜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4_부산 파이널

일 시 |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 의 | 라이브러리컴퍼니 070-4190-1289



스튜디오 지브리의 설립자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여 '지브리 사운드'의 창시자로 통하는 히사이시 조의 영화음악을 대규모 풀 편성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로 만날 수 있는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WE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김재원이 지휘와 함께 섬세한 피아노 연주를 선보이며, 탁월한 음악 해석 능력과 연주력을 갖춘 첼리스트 배성우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 피아노/김재원 • 첼로/배성우
- 연주/WE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2024 예술의 밤

일 시 |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320-8341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관장 변선희)이 운영하는 문화교실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2024 예술의 밤'.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은 그동안 전통문화 발전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문화교실 수강생들로 구성된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은 가야금, 민요판소리, 풍물, 한국무용, 서예, 기타연주 등 6개팀으로 구성되어 문화사회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및 찾아가는 공연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무대에서도 서예를 제외한 5개 예술단이 출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KNN방송교향악단 제7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일 시 |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010-7990-9568



명품 연주력을 자랑하는 KNN방송교향악단과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고의 솔리스트, 그리고 4개의 합창단이 모여 만드는 특별한 하모니 '합창'.

특히 이번 '합창' 공연을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베토벤 페스티벌 콰이어'가 함께 무대에 선다.

프로그램

베토벤/코리올란 서곡
베토벤/교향곡 제9번 '합창'

- 지휘/서희태 • 소프라노/박은주 • 알토/양송미
- 테너/이범주 • 베이스/송일도
- 합창/김해시립합창단, 베토벤 페스티벌 콰이어, 유엔평화기념관 합창단, 부산코러스합창단

게네랄파우제 11월 공연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2일 오후 8:00, 14일 오후 8:00, 23일 오후 4:00) **게네랄파우제**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11월 무대.



1일(금) 오후 8:00
My Man: The Man I Love
 로맨틱하고 다정한 남자부터 무심하거나 때로는 나를 분노케 하는 나쁜 남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그 남자들을 서민 진밴드의 유려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이색 무대.

- 보컬/서민진
- 기타/김경모
- 베이스/신세영
- 드럼/피오트르 파블락



2일(토) 오후 8:00
이달현 재즈트리오
 불꽃 카리스마 기타리스트 이달현과 시간을 연주하는 타임키퍼 드러머 윤혁성, 그리고 현란한 베이스 연주가 돋보이는 마성의 베이스리스트 박지원이 펼치는 재즈의 향연.



8일(금) 오후 8:00 Fusion #6 : Pianists Of Fusion
 조 샘플, 밥 제임스, 제프 로버 등 현대 재즈계에 큰 영향을 끼친 세 피아니스트의 음악을 들려주는 트리뷰트 콘서트.

드러머 홍영호와 베이스리스트 신세영, 피아니스트 강혜인, 색소포니스트 손태호, 기타리스트 송명기로 구성된 홍영호 콰텟의 연주로 들려준다.



9일(토) 오후 7:00 트레프 클라리넷 앙상블과 함께 듣는 고전 Series
 클라리네티스트 강철주, 김성진, 정다실, 주현진, 홍순기, 최현수, 남민우로 구성된 트레프 클라리넷 앙상블의 고전 시리즈.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무대로 관객과 만나온 트레프 클라리넷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클래식을 상징하는 모차르트, 베토벤의 주요 곡을 들려준다.

14일(목) 오후 8:00 Daily jazz
 보컬리스트 제여경, 피아니스트 박찬혁, 베이스리스트 권순안, 드러머 주현우가 들려주는 일상 속 재즈의 향연.



15일(금) 오후 8:00 Alone(홀로서기)
 게네랄파우제와 공동기획으로 매월 열리는 무대로, 11월에는 'Alone(홀로서기)'이라는 주제로, 심리상담 전문가 김선영(가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과 함께 관객들의 사연과 더불어 즉흥콘서트를 펼친다.

- 보컬/서민진
- 피아노/변지혜
- 베이스/신세영
- 드럼/피오트르 파블락
- 스토리, 아코디나/김선영



16일(토) 오후 7:00 La fin de l'automne(가을의 끝자락)
 보컬리스트 최은아와 피아니스트 장세연, 베이스리스트 신명준으로 구성된 최은아 트리오가 늦가을 서정에 잘 어울리는 재즈음악을 들려준다.



22일(금) 오후 8:00 포레누 아르의 다섯 번째 이야기
 테너, 바리톤, 베이스의 다양한 사운드로 평소 듣기 어려웠던 고전, 창작 가곡을 들려주는 포레누아르의 무대.

- 베이스/김진우
- 바리톤/알렉스 김
- 테너/성민기
- 바이올린/김상희
- 피아노/문상민



23일(토) 오후 4:00 작곡가&피아니스트 공성환 리사이틀
 제주KBS 7시 뉴스 음악감독으로 있으며 제주에서 활동 중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공성환의 무대.



29일(금) 오후 8:00 Romantic Autumn
 관악기, 현악기, 건반악기가 함께하는 연주로, 하모니가 주는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앙상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앙상블 튠의 무대. '로맨틱 가을'이라는 주제로, 늦가을에 어울리는 로맨틱한 클래식 음악과 영화 주제를 감상할 수 있다.

- 플루트/장예지
- 첼로/변은석
- 피아노/이혜경



30일(토) 오후 7:00 Last Pause, With Thanks
 가을의 끝자락과 겨울의 시작을 맞이하는 11월의 마지막 날, 그동안 함께했던 순간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 보컬/이효정
- 피아노/김대규
- 베이스/박재훈
- 드럼/고명석

구군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 코믹 오페라 버섯피자

일 시 | 11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현대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현재 세계 전역에서 공연되고 있는 오페라 '버섯피자'. 네 남녀의 얽히고 설킨 사랑을 그려낸 블랙코미디로, 자칫 무거운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는

주제를 현대 희극 오페라의 대가인 세이모어 바랍의 재치 넘치는 작곡으로 '코믹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로 사랑받고 있다.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적인 요소에 네 사람의 각기 다른 성부의 성악가가 들려주는 벨칸토 선율로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 예술총감독/김석중
- 연출/이병웅
- 출연/소프라노 이진영, 메조소프라노 손혜은, 테너 장지현, 바리톤 한정현

을속도문화회관 아트클래스 시리즈 V 호퍼-고독한 뉴욕

일 시 | 11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을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속도문화회관 220-5811~4



미술과 클래식의 만남, 을속도문화회관 아트클래스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이번 무대는 예술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호퍼는

1882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주로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을 많이 그렸으며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표현한 작품이 많다.

국립중앙박물관 강사이자 세종사이버대 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원경 교수의 깊이 있는 해설과 호퍼의 작품과 잘 어울리는 샹송 'Autumn Leaves'를 비롯하여 스킵 조플의 '단풍잎 레그', 드보르자크 현악4중주 '아메리카', 쇼팽 '녹턴 작품 9-1'을 들려준다.

기타 공연장

11월 스페이스옴 음악회

일 시 | 1일(금), 8일(금), 14일(목), 22일(금)
 오후 7:30 스페이스옴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옴 557-3369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옴의 11월 무대.

1일(제565회) 프로젝트 리유Re:Union의 클래식기타 이야기

클래식기타리스트 박정현, 권혁재, 고채윤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리유Re:Union의 무대.

이번 트리오 앙상블로 들려주는 슈페판 락의 '4가지의 기분'을 비롯하여 솔로, 듀오 등 다양한 무대로 클래식기타의 다채로운 선율을 만날 수 있다.



8일(제566회) 르벨 클라리넷 콰텟의 보고 듣는 영화음악

클라리넷리스트 최지혜, 이원기, 히나코 훈자와, 애령 카네타 등 한국, 일본의 클라리넷리스트로 구성된 클라리넷 앙상블 '르벨 클라리넷 콰텟'의 무대.



프랑스어로 '아름답다'는 뜻을 지닌 르벨 클라리넷 콰텟은 국적의 경계를 넘어 악기로 하나되어 사랑스러운 음악의 향연을 펼치기 위해 올해 7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음악 주제곡을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When you wish upon a star(피노키오), IL Postino(일 포스티노), Moon river(티파니에서 아침을), In the mood(스윙걸즈), Gabriel's oboe(더 미션), 꽃날(황진이) 등 수곡

14일(제567회) 조태준과 부산그루브 콘서트



유쾌한 포크락듀오 '하찌와 TJ'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조태준과 부산그루브의 무대.

디지털 싱글 '부산그루브' 발매를 시작으로 부산

로컬뮤지션으로 활동을 시작한 조태준은 지노(미국), 이바일로(불가리아), 바사나(뉴질랜드), 마상령(부산)으로 이루어진 다국적 부산 로컬밴드 '조태준과 부산그루브'를 결성하고 락, 레게, 보사노바,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진 부산스러운 글로벌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22일(제568회) 소리의 여정-한국대중음악사의 숨결



전통음악에 기반한 한국의 대중음악사 렉처 콘서트.

20세기 서양음악

이 유입되며 전통 음악과 공존하기 시작한 이래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던 대중음악의 역사를 해설과 함께 피리 연주자 김지윤과 재즈피아니스트 민주신의 앙상블 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희망가, 올드랭사인, 클레멘타인, What A Wonderful World, My Funny Valentine, 이별, 빈잔, 그 겨울의 찻집, 서른 즈음에 등

수요상설공연 onStage

브라스! 브라스! 브라스!

일 시 | 11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정영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금관 오중주 '브이 브라스'의 무대.

금관앙상블에 드럼을 넣어 기존의 앙상블보다 더 흥겹고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는 브이 브라스는 지난 2015년 2월 창단한 후 관객들에게 친숙한 레퍼토리와 장르로 금관앙상블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1부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금관앙상블 곡을, 2부에서는 브이 브라스만의 매력으로 편곡한 비발디의 '사계'를 들려준다.

- 트럼펫/박춘호(리더), 위대현
- 호른/최희진
- 트롬본/김정현
- 튜바/김정훈
- 드럼/김영훈

구 문예회관 공동 제작 콘서트 레 미제라블

일 시 |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9일 토요일 오후 5: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16일 토요일 오후 5:00
 영도문화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뮤지컬의 감동을 함창과 밴드로 만나는 '레 미제라블' 콘서트.

'레 미제라블'은 19세기 암울했던 프랑스 사회와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한 죄수의 일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는 해운대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이 공동기획·제작했으며 부지휘자 임희준이 지휘하는 부산시립합창단원들이 뮤지컬의 감동을 함창으로 선사한다.

김채영 거문고 독주회 광염(光焰)

일 시 |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 의 | 김채영 010-7766-4221



거문고 선율을 통해 국악의 매력을 알려온 부산의 청년 예술가 김채영 거문고 독주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채영은 제28회 부산국악대

전 일반부 기악부문 장려, 제49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전체 최우수상, 제9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기악 일반부 장려 등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 부산철현금보존회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염'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의 아름다움과 같은 찬란한 젊음의 순간을 스토리로 담아 공감의 시간을 관객과 함께 한다.

- 사회/최인화
- 피아노/변재벽
- 타악/김성찬, 김지호

2024 꼬레아 오페라단 정기공연
베르디 오페라 **에르나니**

일 시 |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VIP 10만원, R석 7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 의 | 꼬레아 오페라단 010-5655-5271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베르디 오페라 '에르나니' 부산 초연.

베르디가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을 떠나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처음 선보인 작품으로, 밀라노에 이어 베네치아에까지 베르디가 오페라 거장의 위치에 오르도록 해준 대작이다.

- 지휘/오창록
- 연출/박용민
- 연주/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합창/그린나래오페라콰이어
- 출연/김정권, 양승엽, 이은미, 왕기현, 안상철, 최대우, 박기범, 문동환, 함지연, 윤태희, 황인태

김소정 가야금 독주회
세 번째 이야기

현현(現絃): 현 위에 나타난다

일 시 | 11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김소정 010-3346-862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이자 양금연구회, 평양기성출판류보존회 회원, 부산양금양상블동인, Music Paint 등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야금주자 김소정의 세 번째 독주회.

이번 무대는 가야금을 통하여 인간 내면의 감정의 본질을 찾고 이를 관객과 공유하고자 마련한 무대로, 전통민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작곡을 통해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 가야금/김소정
- 대금/손한별
- 장구/김인균
- 사회/박서아

이리나&황여진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IPB 010-2290-9463



바이올린과 비올라, 오직 두 대의 악기가 빛어 내는 매력적이면서도 낮은 매력적이면서도 낮은 만남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리사이틀'.

현악기 중 역대대가 가장 비슷하여 같은 악기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만큼 비슷한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그래서 연주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매력적인 듀오로, 이번 무대에서는 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와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황여진의 연주로 모차르트, 헨델-할브르센, 샤르벤카, 브루흐의 곡을 감상할 수 있다.

- 피아노/박민선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 열 아홉 번째 정기연주회 **鼓香**

일 시 |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 583-7958, 010-6540-0112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인 일통(一通) 김청만 명고의 예술세계와 계보를 잇고 있는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지회장 신문범) 정기연주회.

서울대학교 허윤정 교수의 거문고 연주와 김청만 고수의 소리북 반주로 들려주는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를 비롯하여 천안시립풍물단 예술감독인 서한우, 온 무용단의 '버꾸춤', 전남도립국악단 창작부 상임단원인 최윤석,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조주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의 판소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제96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마당극 **오작교 아리랑**

일 시 | 11월 9일 **토요일** 오후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신명넘치는 마당극 무대로 펼쳐지는 을숙도 문화회관 제96회 명품콘서트.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마당극 공연 전문 예술단체인 극단 큰들이 선보이는 마당극 '오작교 아리랑'은 초연 이래 지금까지 최단기간 320회 이상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극단 큰들의 대표작품이다.

'오작교 아리랑'은 오랫동안 등 돌리고 지내는 두 집안 청춘남녀의 사랑을 소재로 소통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한국의 독특한 연극양식인 마당극의 특성을 살려 해학과 익살이 넘치며 설장구놀이, 소고놀이, 버나돌리기 등 풍물놀이를 극속에 결합시켜 전통연희의 신명까지 느낄 수 있다.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6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2:00, 7: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7278-0013, 010-3596-1964



지난 1990년 창단된 부산의 대표적인 피아노단체인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부산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듀오 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오후 2:00 윤지영, 하승경 2인 연주회
사제지간이었던 독일 클래식 거장 슈만과 브람스의 작품을 듀오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오후 7:00 듀오연주회
피아니스트 김인영, 성민주, 김지민, 김문주, 박지은, 전숙영, 박해리, 여숙진, 하수연, 최은비, 김해리, 김민주, 윤예지, 박소진이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듀오 연주로 들려준다.

2024 부산기타합주페스티벌

일 시 |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010-5489-2913



지난 2002년 창단한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이 매년 전국의 유명 기타리스트 및 연주단체를 부산으로 초청, 클래식 기타 애호가와 음악인들을 위해 마련하는 클래식 기타 페스티벌 '2024 부산기타합주페스티벌'.

이번 무대에서는 기타만의 매력으로 또 다른 색깔의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과 1971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기타오케스트라로 기타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리어석 기타오케스트라가 각각 1, 2부 무대를 꾸미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박규희와 기타리스트 박정현이 협연자로 무대에 함께 선다.

우리 시대 최고의 젊은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인 박규희는 알람브라 콩쿠르를 비롯하여 아홉 번의 국제 콩쿠르 우승을 기록하며 오래 전부터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더클래식 제2회 정기연주회 Shall We Dance?

일 시 |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현장판매)
문 의 | 부산더클래식 010-9390-4271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원영아, 이수진, 김미진, 이보리 4명이 모여 창단한 부산더클래식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부산더클래식은 지난해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전통적인 클래식음악은 물론 현대음악,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청중과 소통하고 깊이있는 연구로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국의 이지리스닝 작곡가 코닉의 흥겨운 재즈선율 '6 Hands를 위한 3개의 소품'을 시작으로, 탱고음악 작곡가 피아졸라의 대표곡 '망각', '나이트클럽 1960'과 20세기 새로운 알츠를 제안하는 라벨의 '라 발스' 등 삶의 활력소가 되어줄 음악을 선사한다.

제1회 부산 클래식기타 동아리 풍경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파르티타 부산 0507-1442-7042



클래식 기타라는 아름다운 악기로 세상 풍경을 그리고자 모인 부산 클래식기타 동아리 '풍경'의 첫 번째 무대. 연주자의 손가락을 거쳐 기타를 떠나는 그 소리가 청중의 마음에 전해져 그 순간 연주자와 관객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함께하기를 희망해보는 자리로, 우리 귀에 친숙한 명곡을 솔로와 듀오, 트리오와 콰르텟, 그리고 앙상블로 들려준다.

• 출연/박정민, 박창호, 백민주, 신복남, 심보현, 원란지, 윤은숙, 장효찬, 정지민, 조영애, 황은정

엔니오 모리꼬네 시네마 OST 콘서트

일 시 |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무료(사전에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전 세계 영화팬들의 가슴에 남은 수많은 명작들의 음악을 작곡하여 많은 사랑을 받은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 시네마 OST 콘서트.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난 엔니오 모리꼬네는 1964년 영화 '황양의 무법자' 음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시네마천국', '미션',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등 수많은 영화음악을 작곡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조완수가 지휘하는 영아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엔니오 모리꼬네의 최고 명작 중 10편의 영화음악을 선정, 그가 남긴 아름답고 서정적인 음악을 들려준다.

• 지휘/조완수 • 연주/영아초오케스트라
 • 소프라노/박현진 • 테너/김지훈 • 피아노/이기쁨

이향송 1인 창극 사자탈을 쓴 장산범

일 시 |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 (13세 이상 관람)
문 의 | 데라클 엔터테인먼트 www.deracl.com



한 서린 목소리, 다재다능한 연기의 소리꾼 이향송의 소리를 통해 펼쳐지는 또 다른 이야기의 서사 '사자탈을 쓴 장산범'.

해운대 장산에 얽힌 현대 괴담인 '장산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한국전쟁 당시 가족을 잃고 지리산 사당패로 들어간 주인공 단화를 통해 장산범의 탄생 배경을 풀어내며, 전통 음악의 깊이를 바탕으로 새롭고 매력적인 음악적 요소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한 명의 소리꾼이 여러 인물을 혼자서 표현하며 대사, 연기, 무용 등을 혼자서 진행하는 독특한 형식의 1인 창극이다.

스페셜 아티스트 Happy Family Concert

일 시 |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무대를 통해 수준 있는 공연을 선사하는 울속도문화회관 '스페셜 아티스트'.

이번 무대는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의 무대로, 동요와 가곡, 민요, 가요, 팝합창 등 여러 세대가 한 공간에서 공감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1978년 창단된 한울림합창단은 2005년 부산광역시로부터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됐으며, 그동안 '다시 부르는 노래' 전국 5개 도시 순회연주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 지휘/김창돈 • 피아노/전해란

울속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5일 공연없음)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울속도문화회관이 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한 지역 예술인을 발굴,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울속도 예술공감 11월 무대. 12일(제57회) 4인 4색 희망 콘서트

팝클래식 라루체의 무대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관객에게 힐링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4인 4색 희망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을 비롯해 이탈리아 및 독일 유명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대중적인 뮤지컬 넘버를 포함한 폭넓은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19일(제58회) 시와 노래, 내일을 꿈꾸며 II
 부산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의 시와 음악이 함께 하는 무대.
 1부에서는 동요 솔로와 합창곡으로 아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2부에서는 어른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솔로와 혼성합창 곡으로 다양한 창작 합창곡을 만날 수 있다. 3부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극으로,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꿈꾸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한다.

26일(제59회) 프로인트엠 앙상블의 네번째 이야기 'Waltz'

피아노앙상블 전문단체인 프로인트엠의 무대. 각자의 색깔을 가진 4명의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프로인트엠 앙상블은 그동안 '4 Hands', '6 Hands', '8 Hands' 구성을 통해 피아노 앙상블만의 다양하고 조화로운 음악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울속도문화회관 청년예술공감

일 시 |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14일(제17회) Love in Serenade

뮤지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같은 주제의 사랑 노래들을 묶어 들려주는 세레

나데 아트컴퍼니의 뮤지컬 갈라무대. 뮤지컬 넘버에 맞춘 상징적인 소품을 사용하여 곡 이해도를 높이고 연기와 퍼포먼스를 통해 시각적으로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28일(제18회) Jazz 50s

재즈의 진정한 소리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뭉친 신진 재즈 전문연주단체인 위더스가 정통 재즈 사운드의 신선하고 자유로운 선율을 선사한다.

나눔행복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You've got a Friend in me

일 시 |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레스를 노래로 치유하고 자신만의 목소리로 자유롭게 공연하는 즐겁고 행복한 합창단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친구의 소중함과 우정을 강조하는 타이틀 'You've got a Friend in me'처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무대를 선사한다.

- 단장/최옥석
- 지휘/김성복
- 피아노/김경미
- 사회/김성민
- 재즈보컬/송혜영
- 테너/문한솔
- 드럼/김형진

매번 연주를 통하여 나눔과 행복을 전하는 나눔행복합창단 정기연주회.

나눔행복합창단은 일반 사회인들로 구성된 혼성합창단으로, 음악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변화를 느끼며 삶의 스트

6번째 창작뮤직스토리 금찬이 피아노 독주회 '더 로드' 오아시스

일 시 |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금찬이 010-5701-6424



그동안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를 소개하며 다양한 감성의 연주로 관객과 공감해온 피아니스트 금찬이의 6번째 창작뮤직스토리.

이번 무대는 독일 낭만 작곡가 Teodor Kirchner의 명품곡들을 테마별 창작감성 스토리와 함께 이색적이고 세밀한 인간 감정의 다각도로 '더 로드'의 여정을 통해 음악으로 소통하고 치유의 오아시스를 찾는 스토리텔링 음악회이다.

금찬이는 신라대학교 예술학부 및 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세종대학교 피아노교수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객원교수 및 일반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담교수, 울산대학교 음악과 겸임교수로 있다.

BS오퍼스앙상블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대체 불가능 클래식

일 시 |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BS오퍼스앙상블 010-8325-3588, 010-3592-5697



각 분야 솔리스트로 양성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BS오퍼스앙상블의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BS오퍼스앙상블은 창단 이후 지난 20년 동안 테마가 있는 기획과 듀오, 트리오, 현악4중주, 피아노5중주, 현악5중주, 체임버 오케스트라 등 다채로운 편성,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실내악의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 모차르트, 스트라우스 등 거장 작곡가들의 공연을 BS오퍼스만의 색깔로 들려준다.

- 대표/최은주(피아노)

기타 공연장

제2회 THE울림CHOIR 정기연주회
비발디의 글로리아

일 시 |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THE울림CHOIR 010-4899-3323



‘소리의 울림’, ‘영혼의 울림’, ‘소통의 울림’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깊은 울림을 만들어가는 부산 혼성 아마추어 합창단 ‘THE울림CHOIR’의 무대.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한 전상철 지휘자가 이끄는 THE울림CHOIR는 지난 2016년 11월 창단 후 다수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제1부 ‘명품합창’에서는 영아츠 챔버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대표적인 종교 성악곡인 ‘글로리아’를 들려주며, 2부 ‘세계합창곡’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민요를 들려준다.

- 지휘/전상철 • 반주/최여진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민지, 테너 김진훈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시그니처 콘서트 IX Silhouette
with 심선민

일 시 |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010-8524-0069



‘젊은 음악, 새로운 시도, 공감할 수 있는 클래식’이라는 슬로건으로 참신하고 열정적인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의 정기연주회.

2015년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은 2016년부터 정기연주회인 ‘시그니처 콘서트’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연주자와 협연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로, 화려한 사운드와 테크닉을 동시에 지닌 퍼커셔니스트 심선민과의 협연무대를 선사한다.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악아카데미 제10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문 의 | 테너 강학운 성악클래스 010-9287-6350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자아개발과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악아카데미 회원들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 지도교수, 테너/강학운
- 음악고치, 피아노/최혜련
- 소프라노/박순희, 김경리, 백규원, 조혜주, 이경희
- 메조소프라노/김혜숙
- 테너/정창영, 박용호
- 바리톤/강태훈
- 협연/위드앙상블(바이올린 정다혜·김성희, 클라리넷 김경수·박수민)

정주연 열다섯 번째 Flute Recital
Flute, be with you

일 시 |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2010년 귀국 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독주회를 가져온 플루티스트 정주연의 15번째 독주회.

뛰어난 청음으로 화제가 되기도 한 정주연은 귀국 후 Korea Wind Consort 멤버, KNN 방송교향악단,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다섯째 작품 1033’을 비롯하여 지그프리드 카르그, 포레, 생상스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안준희
- 게스트/플루티스트 이시후, 신승민

팔음(八音); 삶에 대하여

일 시 |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트락 010-6654-6201



옛것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는 슬로건으로, 관객과 가까워지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관객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국악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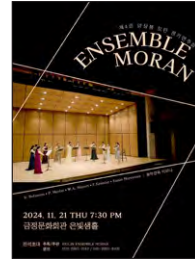
트락의 무대.

이번 공연은 보다 양질의 음악, 각 악기의 본질에 대해 연구하고자 마련한 무대로, 국악기를 만드는 재료인 ‘팔음’이라는 주제로,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음악이 아닌 한국음악이 가진 고유한 특성인 ‘의미가 있는 음악’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 소리/김다솜 • 피아노/이수민
- 피리/안하윤 • 해금/이유민
- 타악/안유진 • 대금/고현아

제4회 앙상블 모란 정기연주회
Floris, 피어나다

일 시 |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앙상블 모란 010-2367-1013, 010-2333-3102



부산, 경남 유일의 바이올린 앙상블팀인 앙상블 모란(MORAN)의 무대. 앙상블 모란은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젊은 단체로, 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이자 인제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이리나를 음악감독으로, 화려하면서도 여유와 품위를 가진 모란꽃처럼 서로 다양한 매력을 가진 연주자들이 다양한 레퍼토리를 MORAN만의 색깔로 들려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Floris,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클래식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음악, 그리고 더 나아가 크로스오버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제200회 한밤의 유U:콘서트 리차드 윌트컴 장군 기념콘서트 창작 오페라 갈라 & KSO가 펼치는 메모리얼 페스타

일 시 |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국제신문 500-5222



2006년 4월, '한밤의 유U:콘서트' 첫 회를 시작으로 200회를 맞이한 부산의 대표적인 상설무대 '한밤의 유U:콘서트'.

이번 무대는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성으로, 정전협정 후 부산 재건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리차드 윌트컴 장군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무대로, '젊은 리더' 부지휘자 백동훈이 지휘하는 국제신문 교향악단과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콩쿠르 1위, 프랑스 마르세유 극장 솔리스트를 역임한 소프라노 황신영 등 부산창작오페라단의 성악가들, 그리고 부산음악상을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

이 윌트컴 장군의 삶을 담은 애가(愛歌)를 들려준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겨레아르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이어 신문사 오케스트라로서는 국내 두 번째인 국제신문교향악단은 오충근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가 초대 예술감독을 맡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우수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 음악팬들과 만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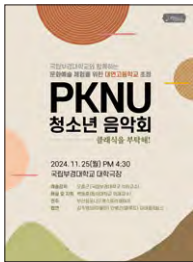
프로그램

- 차이콥스키/1812년 서곡
엘가/수수께끼 변주곡 작품 36 '님로드'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4악장 외
- 지휘/백동훈(KSO 부지휘자)
 - 연주/국제신문교향악단(KSO)
 - 바이올린/김주영
 - 소프라노/황신영
 - 메조소프라노/양승미
 - 테너/양승엽
 - 바리톤/안세범
 - 피아노/최민경



PKNU 청소년음악회 클래식을 부탁해

일 시 |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4:30
국립부경대학교 대학극장
입 장 료 | 초대(예약 필수)
문 의 | BSO 621-4577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함양을 위해 클래식과 만나는 시간, PKNU 청소년음악회 '클래식을 부탁해'.

동아대학교 외래 교수 백동훈이 지휘와 해설을 맡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주영, 플루티스트 안병건, 테너 이태흠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시네마 천국', '미술관 옆 동물원', '주유소 습격 사건', '태극기 휘날리며' 등 영화 속에 등장하는 클래식 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간다.

- 예술감독/오충근(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
- 지휘, 해설/백동훈(동아대학교 외래교수)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협연/김주영(바이올린), 안병건(플루트), 이태흠(테너)

이유회 창작 현대음악 작품 발표회 空空_ZONE II : 인간 그 비극적 존재에 대하여

일 시 |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이유회 010-8784-8638



문학과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이란 존재를 그려낸 이유회 창작 현대음악 작품 발표회.

특히 작곡가는 오디푸스, 안티고네, 아가멤논, 이피게니아, 엘렉트라 등 다섯 명의 비극 속 인물들을 매 작품의 타이틀로 삼아 현대음악의 언어로 인물들을 해석하고 관객들은 음악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각각의 해석을 통한 캐릭터를 인물들에게 부여한다.

영미오페라 페스티벌 그 남자 그 여자, 이상한 네일샵

일 시 |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4: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부산에서 보기 힘든 영미오페라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울속도문화회관 영미오페라 페스티벌.

이번 무대에서는 195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잔 카를로 메노티의 '전화(The Telephone)'

와 시모어 베래브의 '우연한 게임(A Game Of Chance)'을 각색한 '그 남자 그 여자', '이상한 네일샵'을 선보인다.

- 기획/박순기 • 연출/김대경
- 지휘/손성준 • 연주/경상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출연/소프라노 강주희, 바리톤 강경원(그 남자 그 여자), 메조 소프라노 이지영, 소프라노 박나래, 박현진, 베이스바리톤 박순기(이상한 네일샵)

2024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11월 영화, 오케스트라를 만나다

일 시 |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한국영화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화음악감독을 중심으로 매월 색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영화의전당 11시 영화음악콘서트.

한국 영화음악의 거장 조성우가 호스트로 참여하여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관객과 만난다.

11월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로 만나는 영화음악으로, 코리아 필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넘버들을 들려준다. 영화와 오케스트라는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여 영화음악이 더욱 감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도와주면서 감정, 분위기, 장면 전환 등을 강력히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기타 공연장

비엔나에서 만난 영혼들

일 시 |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부산피아노트리오 010-8325-3588



국내 최장수 트리오 단체인 부산피아노 트리오의 무대. 실내악 공연의 기반을 닦은 부산 1세대 음악가들로 지난 1962년 창단된 후 현재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피아니스트 권준(고신대학교 교수), 첼리스트 이일세(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로 세대교체가 된 후 61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연주 프로그램 속 작곡가인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처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수학하고 부산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피아노트리오 멤버들의 앙상블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트리오 내림나장조 KV 502
 베토벤/심포니 제2번 작품 36
 브람스/피아노트리오 제2번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일 시 | 10월 11일(금)-12월 31일(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4:3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입 장 료 | 전석 4만원(만 12세이상 관람가)
 문 의 | 문화락 1600-1602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웃음으로 승화시킨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죽여주는 이야기'는 지난 2008년 첫 선을 보인 후 전국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돌파하며 16년 째 대학로에서 사랑 받고 있는 작품으로, 2015년에는 일본에 최초로 진출하며 화제가 된 작품이다.

자살 사이트를 통해 만난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사연으로 은밀한 실험실에 모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작품으로, '자살, 죽음' 등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일 시 | 5월 1일(수)-Open run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월-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 장 료 | 전석 6만원
 문 의 | 극단 지우 664-8400



세대불문,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휴먼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초연된 후 책을 본 관객 뿐 아니라 연극을 본 관객이 책을 구매하는 역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스테디셀러극으로, 이번에 센텀 KNN타워에 위치한 KNN시어터에서 장기상연에 들어간다. 노숙인이었던 주인공 독고가 올웨이즈 편의점 사장 여머사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가는 과정을 그린 이번 작품은 프로듀서 황기현, 연출 홍현우, 음악감독 김은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탄생한 웰메이드 뮤직드라마로, 감각적인 선율과 극의 정서를 반영한 가사로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전한다.

연극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

일 시 | 11월 9일-10일 토요일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12세 이상 관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100년간 50명이 넘는 인물들의 큰 이야기는 은유로 담아낸 극단 하땅세의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

이번 무대는 중국 최고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류진원(劉震雲)의 동명 장편소설을 마우쑨(牟森)가 각색한 작품으로, 신중국 성립 전후 백 년에 걸쳐 온갖 모습의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 번역/오수경 • 연출, 무대/윤시중
- 드라마트루기/김옥란
- 출연/이종현, 권제인, 고은별, 김채연, 최수라, 박광선, 김승태, 황호찬, 김예진, 백상민.

뮤지컬 신바람 삼대

일 시 | 9월 12일(목)-2025년 1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15세 이상 관람)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대학로의 스테디셀러 '바람난 삼대'의 업그레이드 버전 '신바람 삼대'.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삼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그야말로 남자들의 전쟁이다. 어느 날, 세 남자는 집이 빈다는 기막힌 정보를 얻게 된다. 바글바글하던 집이 오늘날만큼 텅 빈 공간이 되는 것. 세 남자는 각자 사랑하는,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려는 여자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요절복통의 해프닝이 펼쳐지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번 무대는 특히 배우 1인이 3역 이상의 멀티 역할을 맡아 고강도 웃음을 선사한다.

연극 2인극 시리즈

윤조병展 ㄱㄷㄱㄱ

일 시 | 11월 19일(화)-23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공간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유치진, 차범석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계승자이자 한국 연극계의 거목 윤조병 선생의 작품세계를 알아보는 '윤조병展' 첫 번째 무대.

1967년 국립중앙극장 장막희곡 공모에 '이끼 낀 고향에 돌아오다'가 당선돼 연극계에 입문한 윤조병 선생은 대표작으로는 '참새와 기관차'(1971), '딸꾹질'(1973), '농토'(1981), '모닥불 아침 이슬'(1984), '푸름 소리'(1985) 등이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사랑을 노인이 되어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ㄱㄷㄱㄱ'을 배우 황미애, 전성호의 앙상블로 선보인다.

- 작/윤조병 • 연출/전상배

토종 코미디 연극 **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

일 시 |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624
 입 장 료 | 전석 3만원(12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예술도깨비 010-4868-2862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착안하여 창작한 토종 코미디 연극 '고추장수 서일록씨의 잔혹한 하룻밤'.

스튜디오 1인극 '엄정 이 유씨'의 작가 김인경의 작품으로, 전통공연

양식인 마당극을 차용하여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인, 세대와 지역 등 토착민과 이방인과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풀어낸다.

특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곳곳의 혐오와 차별을 유쾌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 작/김인경 • 연출/고능석

뮤지컬 판

일 시 |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24일 일요일 오후 2: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19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소설을 읽어주던 전문 이야기꾼인 '전기수'들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뮤지컬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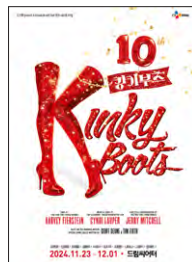
2017년 국립정동극장 창작공연 발굴 프로젝트인 '창작 ing'에 선정

되면서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한 '판'은 풍자소설이 금지된 조선 시기, 양반가 자제 달수가 전기수 호태를 만나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성장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국악기를 기본으로 서양음악요소가 추가된 색다른 음악에 양수별산대놀이, 꼭두각시 놀음, 판소리, 가면극 등을 활용하여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다.

• 작/정은영 • 작곡, 음악감독/박윤솔
 • 연출/박준영 • 안무/이현정

뮤지컬 킹키부츠

일 시 | 11월 23일(토)-12월 1일(일) 주말 오후 2:00, 7:00(평일 공연 없음)
 부산드림씨어터
 입 장 료 |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매 회차 객석을 뜨겁게 달구는 폭발적인 열기와 전석 기립의 신화, 한국 초연 10주년을 맞아 더욱 강렬하게 돌아온 뮤지컬 '킹키부츠'.

'킹키부츠'는 영국 노샘프턴의 수제화 공장들

이 경영 악화로 폐업하던 중 아주 특별한 부츠를 만들어 유일하게 살아남은 구두공장의 실제 성공 스토리를 뮤지컬로 탄생시킨 작품으로, 희망을 전파하는 몽클한 스토리와 신나고 세련된 음악으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킹키부츠'를 대표하는 강홍석을 비롯하여 최재림, 서경수가 편견과 억압에 당당히 맞서는 아름답고 유쾌한 남자 '롤라'로 관객과 만난다.

연극 **글뤽 아우프**

일 시 |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과연 '살아감'이란 무엇인가에 질문을 던지는 연극 '글뤽 아우프'.

파독 광부의 삶을 다룬 '글뤽 아우프'는 2022년 월드2인극 페스티벌에서 대상, 연출상, 연기상 등 3관왕을 수상하고 이듬해 2023년 밀양공연예술축제에서 신진상, 연출상, 연기상을, 2024년 거창국제연극제에서 은상, 무대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우수 연극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1975년 파독 광부로 삶을 갓 시작한 '여성'은 함몰된 지형 확인을 위해 지하 1,000m 아래로 내려가던 중 가스 폭발로 인해 막장과 암벽이 무너진다. 석탄 더미에 깔린 '여성'을 발견한 '윤규'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성'을 살리기 위한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뮤지컬 젤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일 시 |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7일-8일 토-일요일 오후 2:00, 6:30 드림씨어터
 입 장 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 의 | 예명기획 1644-3901



독특한 전개와 중독성 넘치는 음악, 실 새 없는 웃음으로 토너워워즈, 드라마데스크어워즈, 외부비평가상, 드라마 리그어워즈 등을 휩쓸며 브로드웨이를 평정한 뮤지컬 '젤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영국의 작가 로이 호니만이 1907년 발표한 '이스라엘 뎡가: 범죄자의 자서전'이란 소설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된 작품으로, 1900년대 초반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가난한 청년 몬티 나바로가 어느 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고 있다. 잔인한 피의 복수극임에도 누군가가 죽을 때마다 웃게 되는,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관객들의 웃음을 터뜨린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일 시 |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7일 토요일 오후 2:00, 6:00, 8일 일요일 오후 2: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6만 6천원, OP석·S석 5만 5천원 (12세 관람가)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가 나누는 수백 통의 편지를 뮤지컬로 엮은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10주년 기념무대.

'빈센트 반 고흐'는 국내 최초 일본 레플리카 수

출 및 중국 라이선스 공연까지 진행되며 웰메이드 K-뮤지컬로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뮤지컬로, 독보적인 음악으로 사랑받는 싱어송 라이터 선우정아가 작곡을 맡아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특히 가난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빈센트 반 고흐와 그의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던 동생 테오 반 고흐가 들려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3D 프로젝션 맵핑 기술로 고흐의 수많은 명작들이 살아있는 영상으로 무대 위에 펼쳐진다.

기타 공연장

2024 더파크댄스 **Ugly and Thorn**

일 시 | 11월 6일 수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일반 3만원, 청소년 2만원
 문 의 | 더파크댄스 0505-333-3428



한국 현대무용의 다양성을 넓혀 국내외 안무자와 작업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국제무대로 나아가기 위해 결성된 더파크댄스의 무대.

부산대학교 박근태 교수가 예술감독으로 있는 더파크댄스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젊고 신선한 사고와 움직임으로 시대를 대변하고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안무를 맡은 박근태 예술감독은 춤이 가진 아름다움(美)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사회적 폭력에 관한 시선을 담은 'Ugly and Thorn'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안무자의 춤에 대한 기억에 관한 작품으로, 'Thorn', 'Lecture Performance', 'Ugly' 등 3부로 구성되어 있다.

- 안무/박근태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윤도경밴드&싱어송라이터 수플 포크 콘서트
쟁글쟁글

일 시 |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에서 성장하여 영도에서 노래 만들고 부르는 영도 청년 윤도경의 토크 콘서트.

포크를 바탕으로 성장, 사랑, 연민, 소진, 애도 등 삶의 기쁨과 슬픔을 따뜻하고 담담한 어조로

담아내고 있는 윤도경은 이번 무대에서 그의 창작곡을 중심으로 김민기, 시인과 촌장 등을 비롯한 포크 음악의 소박한 감동과 따뜻한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초대 손님으로 순간을 담아 전하는 목직현 선율의 싱어송라이터 '수플'이 출연, 서정성과 청아한 음색으로 이번 공연의 온기를 더한다.

2024 신예담무용단 정기공연
 신예담의 춤 아홉 번째 이야기 **舞談**

일 시 |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신예담무용단 010-5473-3241



대구시무형유산 '살풀이춤'의 부산지역 첫 이수자로, 전통춤의 보존과 전승에 힘써온 춤꾼 신예담의 9번째 정기공연.

신예담은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신예담무용단 대표, 동백아리랑 예술단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제40회 전국무용예술제 종합대상(국회의장상), 제30회 전국국악대전 종합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 권명화류 살풀이춤, 강선영류 태평무, 권명화류 고평이춤, 권명화류 입춤, 진도복춤, 권명화류 소고춤, 고선아류 입춤, 동래학춤, 초립동, 선살풀이춤
- 해설/장명화
- 찬조출연/동래학춤보존회, 정길무용단,

2024 송골매 콘서트 '열망' 두 번째
늘-봄 in 부산

일 시 |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12월 1일 일요일 오후 3:0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 R석 14만 3천원, S석 13만 2천원
 문 의 | 드림메이커엔터테인먼트트리미티드 02-323-8500

박창근 장르 with 오케스트라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6:00 **KBS부산홀**
 입 장 료 | VIP석 15만 4천원, R석 13만 2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뉴스사람이엔티 1644-2543

2024 케이윌 소극장 콘서트 **All The Way**

일 시 |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6:00, 12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13만 2천원, S석 12만 1천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경희댄스시어터 **원탁의 기사-8**

일 시 |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경희댄스시어터 010-4165-7136



장르에 경계를 두지 않는 창작 현대무용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경희댄스시어터의 무대.

최근 국립현대무용단의 지역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의 공식 안무가로 선정된 안무가 박재현이 이끄는 경희댄스시어터는 지난 2016년 창단된 후 무용-움직임에 국한하지 않고 음악, 연극, 미술 등 타 장르의 예술인들과의 협업으로 보다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원전수, 마약 등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이를 옹호하고 방관하는 기득권 세력의 형태를 고발한다.

- 안무, 연출, 대본, 드라마터그/박재현
- 출연/천권준, 방영미, 서정애, 안희주, 김지혜, 박미라, 이재형, 김하은, 박재현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 3개월 12만원, 1회 청강비 2만원
 (현장강의 9회, 음악회 1회)
 문 의 | 박진영 010-3642-6436(문자 문의)



뮤직가이드 박진영과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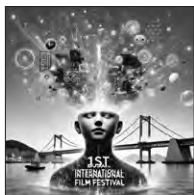
각 나라를 대표

하는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영상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수업 후에는 각 나라의 민요, 가곡, 뮤지컬,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세.음.여 중창단' 활동 또한 가능하다.

11월부터 시작되는 4분기 강좌에서는 작곡가 시벨리우스, 그리그, 뮤지컬 '맘마미아'로 대표되는 북유럽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박진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해운대문화회관 아카데미, 해운대인문학도서관, 연제구 클래식을 만나다 등 다양한 음악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8일(금), 22일(금) 오후 2:00, 28일(목) 오후 5:00
시네바움
문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4일(월) 오후 7:00
생성형 AI와 인간의 GS가 조우하다_뉴 폼 아트, 그리고 영화
• 강사/박은지(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시문화경영연구소장)

8일(금), 22일(금)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예약 필수)

11일(월) 스크린 컬처의 진화와 포스트-시네마 시대, 영화의 재배치
• 강사/차민철(동덕여대 영화학과 교수,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18일(월) 포스트-시네마, 인공지능 영화(AI Cinema)의 가능성
• 강사/전병원(미래영화연구소 소장)

25일(월) 지역 자주 영화 문화를 위한 토론회 '지역 자주 영화 문화, 가능한가?'

• 참가 대상/일반 시민, 영화애호가, 영화평론가, 영화학자
28일(목) 하이쿠 산책(예약 필수)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연주회 해설감상회&작곡가 탄생지 다큐멘터리 기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 장 료 | 10만원(2개월)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 음악감상과 함께 알기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 연주회 실황 등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클래식 입문자 환영.

프로그램
로드리고 '아랑페즈 기타협주곡',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제3번, 제4번, 베토벤 가곡 '아델라이데', '멀리 있는 연인에게'
슈베르트 연가곡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쇼팽 피아노협주곡 제1번, 제2번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국민음악파 특집' 크로스오버 클래식음악 특집 등

제198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일 시 |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010-63670-0149

• 출연/정미옥 시인, 김혜숙 시낭송가 외 회원
• 사회/김병래 전 KBS 아나운서
• 초청음악가/소프라노 권소라, 테너 김이수, 바리톤 한성권, 배용

국립민속박물관 2024 k-museums 공동 기획전 노릇노릇 부산

일 시 | 6월 25일(화)-12월 1일(일)
해양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문 의 | 해양자연사박물관 553-4944~5

부산시어(市魚) 고등어와 부산의 해양수산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자 기획된 특별전.

임시수도기념관 특별전 고무신

일 시 | 7월 30일(화)-11월 30일(토)
임시수도기념관 전시관
문 의 | 임시수도기념관 244-6345

정관박물관 10년의 기록 이제 우리의 일기를 쓰겠습니다

일 시 | 9월 3일(화)-12월 31일(화)
정관박물관 상설전시실
문 의 | 정관박물관 720-6921

지난 10년간 수집한 신수유물·기증유물·아카이브 자료를 조명, 지역 대표 박물관으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전시.

보스코 소디 개인전 Dawns

일 시 | 9월 4일(수)-11월 24일(일)
조현화랑 달맞이
문 의 | 조현화랑 달맞이 747-8853

독특한 질감의 부조 회화 작품으로 잘 알려진 보스코 소디의 세 번째 개인전. 이번 전시에서는 나무, 점토, 돌, 톱밥, 삼베 등 가공되지 않은 천연 재료를 다루는 작가의 다채로운 작업세계를 소개한다.

김유준 초대 사진전 운(雲) 좋은 날

일 시 | 11월 4일(월)-11월 27일(수)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하늘 사진을 찍은 뒤 '사계절 기후에는 어떤 구름들이 나올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운(雲) 좋은 날' 프로젝트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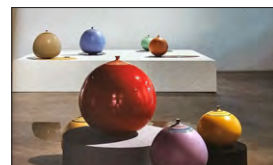
2024년 부산근현대역사관 특별기획전 동백아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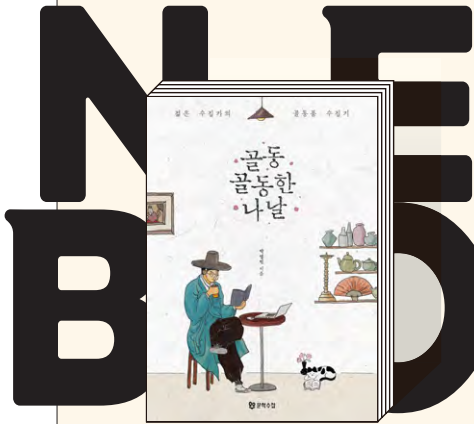
일 시 | 10월 15일(화)-12월 8일(일)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기획전시실
문 의 | 부산근현대역사관 607-8000

CERAMIC 김창희×WOOD 브로슨 콜라보레이션 초대기획전 공예만찬

일 시 | 11월 9일(토)-11월 30일(토)
갤러리 한스
문 의 | 갤러리 한스 784-0233

전통적 도예기법으로 제작된 완벽한 조형성에 다채로운 색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김창희 도자작가와 국악과 미술을 전공한 형제가 만드는 한국적인 오브제 브로슨 소반의 감각 넘치는 콜라보레이션 전시.





골동 골동한 나날

박영빈 지음
문학수첩 / 1만 7,000원

골동품이라고 하면 연세 지긋한 분들의 관심 분야일 거라는 편견을 깨버리는 책. 책날개에 조선시대에서 온 꽃선비(?) 같은 저자 박영빈 씨의 사진이 있다. 한복 차림이다.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방간'이라고 하는 관으로, 말총으로 만들었고 조선말~일제강점기 시대 즈음의 유품이다. 그 안에 쓴 탕건과 망건은 현대에 천으로 만든 것이다. 골동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진다. 저자는 1990년대 생 젊은 골동품 수집가이다. 이 책은 골동의 매력에 빠져 골동품을 수집하게 된 이야기, 그렇게 모은 골동들과 수집하면서 겪은 일, 그 과정에서 맺게 된 인연들과 느꼈던 감정들을 풀어놓고 있다. 골동품 자체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 취미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골동과 함께하는 삶이다. 저자는 '실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들이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우고 지킨다. 늘 옆에 두고 보거나 사용할 골동이 그의 관심분야이다. 그렇게 들인 물건인 고려청자 다완에 담아 차를 마시고, 원나라 때 백자 향로에 향을 피우고, 일제강점기 때 촛대에 초를 꽂아 불을 밝힌다. 이 책은 골동 분야에서는 보기 드문 1990년대 생 수집가가 풀어놓는, 골동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가득하다.



여행기에게 만난 한국문학

강진호 지음
민음사 / 2만 2,000원

“종잇장 위의 활자로 시를 읽는 것과 시인이 그리워하던 흙과 바다와 고향의 뒷산을 직접 가 보는 것은 그 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문학이란 무릇 사람이 낳는 것, 작품을 논리화하는 일도 중요하나 그 작품을 낳은 사람을 들여다보는 눈 또한 중요하다. 수많은 작품을 읽었지만 글쓴이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가를 반문해 본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쌓이면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이 책은 강진호 성신여대 국문학과 교수가 20년 답사로 완성한 한국문학 지리지이며, 교과서에서 배웠던 문학을 삶의 현장에서 다시 배우는 시간을 선사한다. 부산의 요산 김정한을 비롯해 봉평의 이효석, 안동의 이육사, 군산의 채만식, 통영과 원주의 박경리, 부여의 신동엽, 옥천의 정지용, 괴산의 홍명희, 통영의 유치환 등 한국문학사에 족적을 남긴 작가들의 ‘근거지’ 23곳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가와 작품 세계를 담아냈다. 한국문학 성지들만을 엄선한 문학 여행기이자 생생한 현장의 언어로 쓰인 비평집이기도 하다. 좋아하는 작가를 찾거나, 여행가고 싶은 곳이 마침 좋아하는 작가의 고향이거나, 무엇이 되었든 설레는 마음으로 문학 여행을 나서고 싶게 하는 책이다.



아빠, 나의 바다

이경아 그림책
창비 / 1만 6,000원

그림책을 몇 쪽 넘기다가 가슴이 두근거렸다. “부산, 부산과 닿아 있는 더 넓고 큰 바다를 그린 것이 분명하다”는 느낌이 왔다! 이경아 작가 소개글에서 ‘부산에서 태어나 아동복지학을 전공하고 그림책을 짓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원양어선을 타는 아빠와 바다를 그려 담은 이 책은 2023년에 시작한 제1회 창비그림책상 수상작. ‘신선하면서도 천진한 그림체가 매력적이다. 대범한 화면 연출은 작가의 시야가 넓고 든든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어린이가 어른의 세계를 관찰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어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이 새롭다.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여자 어린이 주인공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심사평이 그림책 분위기를 말해준다. 작가는 주인공이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살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부산의 대청동 높은 동네, 영도의 흰여울마을을 다니며 아이가 살던 마을의 풍경들을 재구성해서 그렸다. 그림책 안에 그려진 선원들이 적도제를 지내는 모습이나 바다거북을 만나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용왕님이라고 여겼다는 내용 등은 국제신문 해양 특집 기사를 참고했다고 한다. 부산과 바다를 가득 담은 그림책이라 더욱 반갑고 정겹다.

2024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3차 모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부산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의 주역이 될
참신하고 유능한 신규단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단원 모집 개요

- 응시 자격 : 노래에 소질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할 수 있는
부산시 거주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 '24년 10월 학기 기준)
- 모집 인원 : 00명
- 모집 조건 : 공연 출연 및 연습 참여 ▷ 주 3회 연습 참여
※ 화, 목(17:00-20:00), 토(10:00~12:30), 내부사정에 따라 연습일정은 변동 가능

🎵 일정 및 방법

• 전형일정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전형장소	합격자발표
2024.11.1.(금) ~ 11.19.(화) (*14:00 마감)	실기 및 면접전형	2024.11.23.(토) 13:00 ~ ※ 12:30까지 대기실 입실 완료	부산문화회관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2024.11.26.(화) 17:00 (예정)

※ 응시순서 추첨 시작 후 입실 시 응시 불가

• 전형방법 : 실기전형 및 면접전형

- 응시순서 추첨 : 전형 시작 30분 전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실기전형 순서 추첨
- 추첨 순서에 따라 개별 실기전형 실시 후 면접전형 실시

• 과제

구분	세부내용
실기전형	자유곡 악보 제출(4장 이내+PDF파일 / *응시원서와 함께) ※ 반주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반주자가 진행 ※ 당일 전형 시에 자유곡 악보를 출력해서 가지고 올 것
	공통 1. 발성 테스트 2. 애국가 1~4절 외워서 부르기 3. 음감 테스트 : 피아노로 치는 3~4개 연결음을 따라 부르기
면접전형	응시자 면접 : 자기소개 및 특기 소개 ※ 당일 전형 시에 부모님은 전형 장소 밖에서 대기

🎵 응시원서 접수방법

- 해당 공고문 첨부파일 「응시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2024.11.19.(화) 14시까지 e-mail 접수 : thijang77@bscc.or.kr
- 준비서류 : 응시원서 1부, 자유곡 악보(4장 이내 / PDF파일) 1부
• 첨부파일 및 메일 제목 "2024 응시원서_홍길동(응시자 이름)"
•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접수 후, 이상이 있는 접수자만 개별 회신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까지 확인된 메일만 접수 인정
※ 전형당일 : 재학증명서(본인 확인용)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예술단운영팀 051-607-3131



부산문화회관 주차 안내

부산문화회관을 찾으시는 고객들의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
기존 주차요금제가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설치된 사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출구에서 기다림 없이 빠른 출차가 가능합니다.

P 주차요금 안내

주차시간	요금	할인 대상	50%
입차 후 4시간 이내	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회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친환경, 다자녀, 요일제 다회(2회 이상) 수강등록한 아카데미 수강생 	
4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최대	4,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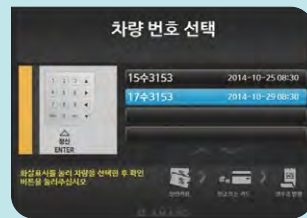
P 무인정산기 등록안내



Step 1 차량조회 선택



Step 2 차량번호 입력



Step 3 차량선택



Step 4 바코드 할인 후 결제
(바코드 할인 인식 후 폐기)

정기회원 주차 안내

- **무료주차권 사용** 기존의 정기회원 주차쿠폰은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편을 통해 새로운 바코드주차권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주차권을 수령하지 못한 회원님께서서는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주차요금 할인** 기존 정기회원카드 제시가 아닌 사전 등록 차량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하며, 정기회원 기간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변경시에는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차량번호 등록 방법** 구글폼(<https://forms.gle/4mQZWVeQR9BXzSL38>), E-메일(cus@bscc.or.kr),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차량번호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 607-6000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 이벤트

- **이벤트 기간:** 11월 11일(월)-11월 22일(금)
- **가입 방법:**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 **가입 선물**
 - VIP회원: 알로 전동와인(선착순 20명)
 - 스페셜회원 및 예술단회원: 탠디 자동3단우산(선착순 40명)
- **수령방법:** 등기우편발송(회원가입 시 등록된 주소)
※ 가입취소는 5일 이내로 가능하며, 취소시 선물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 607-6000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 2025 상반기 공연프로그램(1월~6월)

부산시립예술단 2024 하반기 공연프로그램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 문의 : 051)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2025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챔버홀 2025. 1. 4.(토) 5:00pm,
1. 8.(수), 1. 10.(금), 1. 14.(화), 1. 17.(금) 7:30pm
• 예술감독 | 김동욱
※ 7세 이상 관람

BNK부산은행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25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문화 | 대극장 2025. 1. 11.(토) 5:00pm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110,000원 A석 90,000원
• 지휘 | 요하네스 빌드너
• 협연 | 소프라노 조수미
• 연주 |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부산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시리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문화 | 중극장
전석 20,000원

#1. 2025. 1. 23.(목) 7:30pm - 1. 24.(금) 11:00am | with 박진우
#2. 2025. 3. 25.(화) 7:30pm - 3. 26.(수) 11:00am | with 조인혁
#3. 2025. 7. 24.(목) 7:30pm - 7. 25.(금) 11:00am | with 조성현
#4. 2025. 8. 28.(목) 7:30pm - 8. 29.(금) 11:00am | with 브랜든 최
#5. 2025. 10. 30.(목) 7:30pm - 10. 31.(금) 11:00am | with 황세희
• 지휘, 해설 | 홍석원, 백승현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부산 클래식의 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문화 | 대극장 2025. 2. 20.(목), 4. 4.(금), 5. 29.(목)
7. 25.(금)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연주 |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안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압도적 박력으로 넘나드는 장르의 경계, 록 그너머의 록 잠비나이 콘서트 with 미역수염

문화 | 중극장 2025. 3. 15.(토) 5:00pm
전석 40,000원
• 출연 | 잠비나이
• 서포트 액트 | 미역수염
※ 7세 이상 관람



두 남녀의 만남과 사랑을 그린 연극 <랑데뷰>

문화 | 중극장 2025. 4. 4.(금) 7:30pm, 4. 5.(토) 3: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작연출 | 김정환, Yossef K
※ 7세 이상 관람



독일 고전주의 전통의 정수 크리스티안 테슬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5. 5. 2.(금) 7:3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서로 다른 음악적 깊이가 만나 빛어내는 우정의 선율 김영옥&김다솔 듀오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5. 5. 3.(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바이올린 | 김영옥
• 피아노 | 김다솔
※ 7세 이상 관람



완벽한 균형으로 선사하는 절묘한 음악적 해석의 극치 에스메 콰르텟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5. 6. 5.(목)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연주 | 에스메 콰르텟
※ 7세 이상 관람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춤 국립현대무용단 <암! 암! 암!>

문화 | 중극장 2025. 6. 14.(토)-6. 15.(일) 2:00pm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안무 | 박영콜, 이정주
※ 48개월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시민 | 대극장 2025. 1. 17.(금) 7:30pm
VIP석 50,000원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지휘 | 이동훈 • 사회 | 정희정
• 출연 | 하윤주, 이대하, 이희문과 농농, 정태춘, 궁궁, 트레블러크루
• 연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7세 이상 관람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천상의 화음'
2025 빈 소년합창단

시민 | 대극장 2025. 1. 23.(목) 7:30pm
VIP석 88,000원 R석 66,000원 S석 44,000원
A석 22,000원
• 지휘 | Oliver Stech
※ 7세 이상 관람



©Lukas Beck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살롱 드 바이올린 토크콘서트 I
대니 구**

시민 | 소극장 2025. 2. 21.(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Sangwook Lee

있고 있던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특별한 작품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시민 | 전시실 2025. 3. 7.(금) 2:00pm, 7:30pm
8.(토) 2:00pm, 5:00pm
전석 30,000원
• 프로듀서 | 석재원 • 연출 | 오경택
• 출연 | 김아영, 정세별
• 제작 |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영
※ 13세 이상 관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키즈송 위드 클래식>**

시민 | 소극장 2025. 3. 15.(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 부산**

시민 | 대극장 2025. 3. 29.(토)-3. 30.(일)



도심 속 문화 쉼터
2025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광장 2025. 4. 25.(금), 5. 2.(금), 5. 9.(금)
5. 16.(금) 12:10pm
무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클래식 댄스! 댄스!>**

시민 | 소극장 2025. 5. 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5. 5. 17.(토)



캐나다 대표 오케스트라와
대한민국 간판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만들어내는 울림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시민 | 대극장 2025. 5. 29.(목) 7:30pm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90,000원
A석 50,000원
※ 7세 이상 관람



뮤지컬 '파가니니'의 주인공, '지붕 위의 바이올린', '모비딕', '페임' 주역
**살롱 드 바이올린 토크콘서트 II
KoN(콘)**

시민 | 소극장 2025. 6. 20.(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2025년 제5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초청작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

시민 | 소극장 2025. 6. 27.(금) 8:00pm
6. 28.(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출연 | 강애심, 장은정, 최지연, 김혜숙, 조민수
※ 36개월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4. 8. 23(금) 9:00pm

- 지휘 | 백승현
- 반도네온 | 고상지



제12대 홍석원 예술감독 취임 기념 제612회 정기연주회 (2024 제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Prélude**

문화 | 대극장 2024. 9. 6(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알렉산더 코르산티아



제613회 정기연주회 브루크너 탄생 200주년 기념 **Romantic**

문화 | 대극장 2024. 10. 1(화) 7:3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김재영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4 <부산시향의 줄인 2>

문화 | 챔버홀 2024. 10. 11(금) 7:30pm

- 첼로 | 이일세
- 피아노 | 서형민



기획음악회 제8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4. 10. 25(금) 7:30pm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이연서
- 바이올린 | 권세훈
- 호른 | 송지호
- 트럼펫 | 백도영
- 바이올린 | 황아영



제614회 정기연주회 **England**

문화 | 대극장 2024. 11. 7(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첼로 | 이상은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 5 <부산시향의 줄인 3>

문화 | 챔버홀 2024. 11. 26(화) 7:30pm

- 더블베이스 | 배기태
- 피아노 | 문재원



기획음악회 심야음악회 2

문화 | 중극장 2024. 12. 6(금) 9:00pm

- 지휘 | 백승현
- 바이올린 | 김서현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3

문화 | 대극장 2024. 12. 19(목) 7:30pm

- 지휘 | 홍석원



제615회 정기연주회 BPO's Mahler Series **Auferstehung**

문화 | 대극장 2024. 12. 20(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소프라노 | 박소영
- 메조소프라노 | 양송미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5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4. 10. 29(화)-10. 31(목) 7:00pm

- 지휘 | 이기선



특별연주회 현대합창 시리즈 5 <현대합창의 밤>

문화 | 대극장 2024. 11. 1(금) 7:30pm

- 지휘 | 이기선



제194회 정기연주회 현대 오라토리오 <The Ordering of Moses>

문화 | 대극장 2024. 12. 5(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협연 | 박은주(소프라노), 김효종(테너), 장정권(카운터 테너), 사무엘 윤(베이스 바리톤)
- 연주 | United Korean Orchestra



부산시립무용단

제90회 정기공연
舞歌 용호상박

문화 | 대극장 2024. 10. 25(금) 7:30pm
26(토) 3:00pm
• 연출:안무 | 국수호·이정윤



특별공연
안무가육성프로젝트 <홀로홀춤>

문화 | 중극장 2024. 12. 13(금) 7:30pm
14(토) 3:00pm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6회 정기연주회
青春 歌樂

문화 | 중극장 2024. 9. 7(토) 5:00pm
• 지휘 | 이동훈



제227회 정기연주회
우리 음악의 거장 [박범훈]

문화 | 대극장 2024. 10. 18(금) 7:30pm
• 객원지휘 | 박범훈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세종문화회관 | M씨어터 2024. 10. 25(금) 7:30pm
• 지휘 | 이동훈



제49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4. 11. 26(화) 7:30pm
• 지휘 | 김경수



제228회 정기연주회
2024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4. 12. 18(수) 7:30pm
• 지휘 | 이동훈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문화 | 사랑채극장 2024. 9. 7(토)-10. 12(토)
화-금요일 11:30am(단체공연, 공휴일 제외)
9. 7(토), 9. 21(토), 9. 28(토), 10. 3(목), 10. 5(토), 10. 9(수)
10. 12(토) 11:00am, 2:00pm(일반공연)
• 대본 | 김영화 • 연출 | 김지용



제7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베르톨트 브레히트
코카서스의 백묵원**

시민 | 소극장 2024. 11. 15(금) 7:30pm, 11. 16(토) 5:00pm
• 원작 | 베르톨트 브레히트
• 객원연출 | 강태욱



제7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베르톨트 브레히트
사천의 선인**

시민 | 소극장 2024. 11. 22(금) 7:30pm, 11. 23(토) 5:00pm
• 원작 | 베르톨트 브레히트
• 객원연출 | 양지웅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4회 정기연주회
오르간

문화 | 대극장 2024. 9. 10(화) 7:30pm
• 지휘 | 백승현
• 협연 | 하유나(바이올린), 허예은(첼로), 박준호(오르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4. 10. 5(토) 5:00pm



제75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4. 11. 29(금) 7:30pm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천사들의 노래

문화 | 중극장 2024. 9. 7(토) 5:00pm
• 지휘 | 천경필
• 특별출연 | 박은주(소프라노),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 김태경)



특별연주회
제35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4. 11. 8(금)-9(토)
금요일 7:00pm, 토요일 3:00pm
• 지휘 | 천경필



제165회 정기연주회
즐거운 겨울, 크리스마스

문화 | 대극장 2024. 12. 14(토) 5:00pm
• 지휘 | 천경필



MEMBERSHIP GUIDE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공연예술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에 응급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성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수(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수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사전등록된 차량)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 (20%), 50명 이상 (30%)

VIP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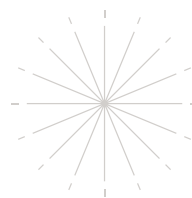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4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연극 <이단자들>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 7:30, 10월 2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5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25년 1월 4일(토) 오후 5:00, 8일(수),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14일(화), 1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회차별 20매)

2025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종료**

2025년 1월 1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2025년 1월 1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콘서트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3월 25일(화) 오후 7:30, 26일(수) 오전 11:00
7월 24일(목) 오후 7:30, 25일(금) 오전 11:00
8월 28일(목) 오후 7:30, 29일(금) 오전 11:00
10월 30일(목) 오후 7:30, 31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 7월 공연은 전시실



2025 빈 소년 합창단 종료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Sound of Busan #1 브람스 교향곡 No.2 외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

2025년 2월 20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2025년 3월 7일(금) 오후 2:00, 7:30
8일(토)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전시실1(회차별 10매)

잠비나이x미역수염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5월 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2 브람스 교향곡 No.1 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연극 <랑데부>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종료

2025년 5월 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30매)

김영욱&김다솔 듀오 콘서트

2025년 5월 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30매)

**Sound of Busan #3 브람스 교향곡 No.4 외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종료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3
<압! 압! 압!>**

2025년 6월 14일(토)-6월 15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에스메 라르렛 리사이틀

2025년 6월 5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살롱 드 바이올린
KoN(콘) 토크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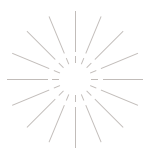
2025년 6월 20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관객참여형 감성치유 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바바레따에 살고 있군요>**

2025년 6월 27일(금) 오후 8:00, 2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4 브람스 교향곡 No.3 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25년 7월 2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지원센터(051-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은누리약국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은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문홍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즈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애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임은자
- 정명선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 허혜영
-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 ★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홍보 마케팅팀(607-6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 풀기 60



- 2024. 10. 28.(월)~11. 13.(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4. 11. 25.(월)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4년 11월호 낱말퍼즐 정답 및 당첨자

당첨자

010-****-2840 010-****-7308
010-****-2494 010-****-1142
010-****-2252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재)부산문화회관



@배시시TV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당일 \$100 이상 구매시, 1만원 면세포인트 증정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사은정책 적용

증정 기간 : 2024. 11. 30까지
증정 장소 : 부산점 고객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초대

2025년 신년호 특집 이벤트

2025년 창간 33주년을 맞는 <예술의초대>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예술의 초대>는 그동안 부산지역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며 부산의 문화와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술의초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신년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분 중 **서른 분**을 선정, (재)부산문화회관이 제작한 **티켓북**을 신년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신년계획은 <예술의초대> 2025년 신년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기간: 2024년 11월 1일(금)-12월 13일(금)
- 응모내용: 2025년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신년계획을 **100자**로 정리
- 응모방법: 메일(book2580@bscc.or.kr) 혹은 QR 접속
- 증정선물: 티켓북



이벤트 속 또 하나의 이벤트!!!

쿠폰북 속 신년음악회 티켓을 찾아라

쿠폰북 당첨자 서른 분 중 다섯 분에게는 (재)부산문화회관 2025 신년음악회 초대권(공연 랜덤)을 드립니다. 행운 속 또다른 행운을 누리보세요.



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시민회관 신년음악회

방문인증 이벤트

당첨자 혜택이 확 달라집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기획공연 **초대권 및 기프트콘** (치킨 또는 피자)을 드립니다. 또한, 당첨자 후기 사진은 매월 <예술의초대>를 통해 게재됩니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94회 정기연주 및
BUSAN METROPOLITAN CHORUS 현대 오라토리오 시리즈 I

THE ORDERING OF MOSES

Program

Ralph Vaughan Williams 『Festival Te Deum』

R. Nathaniel Dett 『The Ordering of Moses』

지휘 **이기선**

소프라노 **박은주**

카운터테너 **장정권**


테너 **김효종**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나주시립합창단

연주 United Korean Orchestra

2024. 12. 5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베토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5회 정기연주회

2024. 11. 29.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Ludwig Van Beethoven

루드비히 판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Overture to "The Creatures of Prometheus"

삼중협주곡, 작품번호 56

Triple Concerto in C major, Op.56

교향곡 제5번, 작품번호 67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 백승현

바이올린 정진희

첼로 정광준

피아노 진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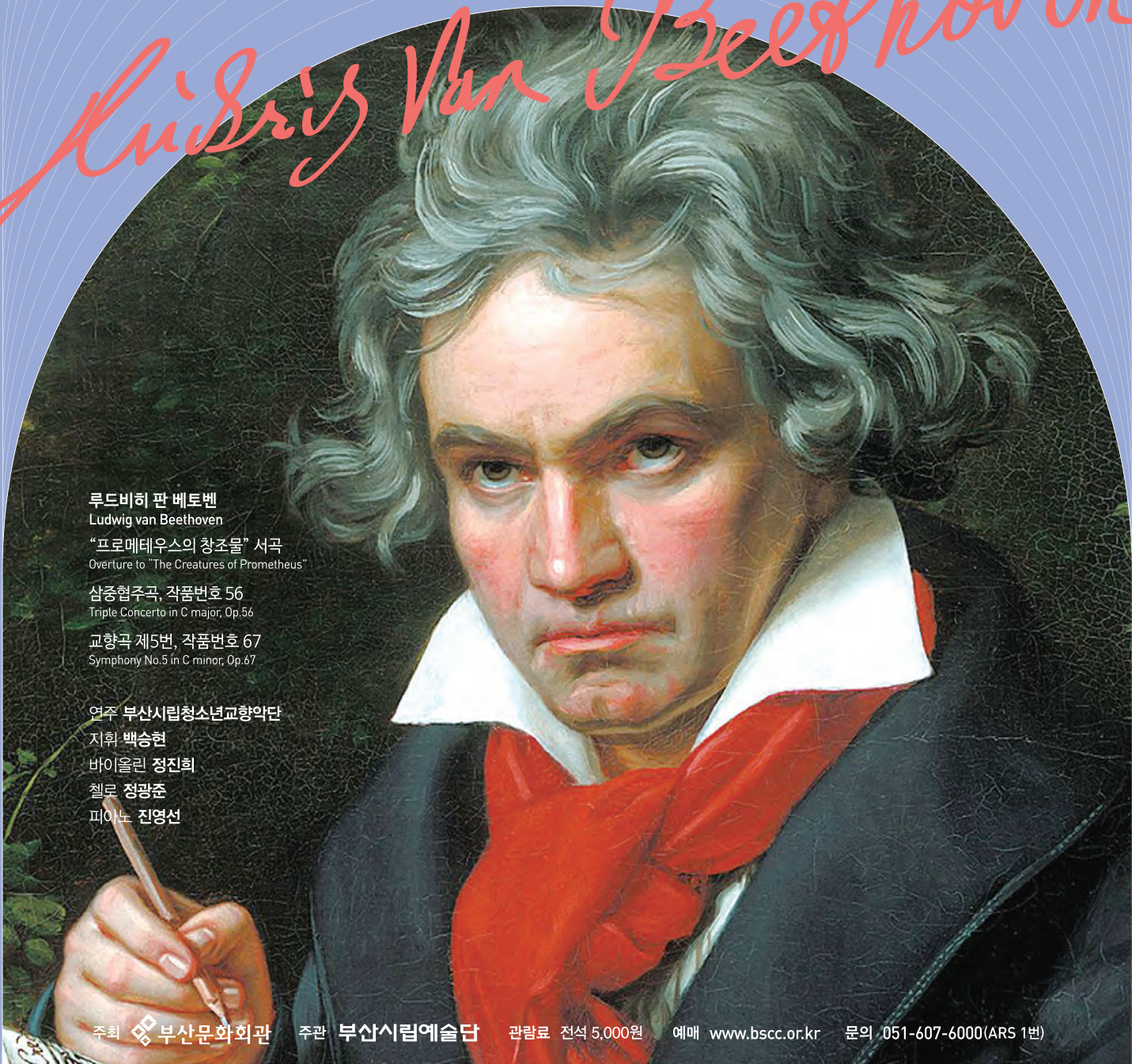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관람료 전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607-6000(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9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 젊은
음악회

지휘 김경수

대금 이규원

가야금 김석민

피리 박수빈

거문고 황진호

거문고 유현지

아쟁 조성준

가야금 장원지

| 프로그램 |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거문고로 그리는 풍경

가야금 협주곡 "소나무"

피리 협주곡 "달의 눈물"

대금, 소아쟁, 거문고를 위한 협주곡 "내일"

2024. 11. 26 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4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토요일의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2024. 12. 7.(토) 1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극단 제78회 정기공연
with 공연예술아카데미 1기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시 간 평일 19:30 토요일 17:00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051-607-6000) 전석 20,000원
패키지 2작품 예매시 30%

스타프로젝트 베르톨트 브레히트

11월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코카서스의 백묵원

2024.11.15.(금) 19:30, 11.16.(토) 1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12세 이상 관람가

연출 강태욱
출연 이현주 | 황창기 | 김은희 | 이혁우 | 서보기 | 김성열 | 윤영식
양희진 | 이동현 | 김아람 | 허다연 | 장영찬 | 양진우 | 허유성
박지연 | 김선이 | 안희민 | 이은미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사천의 선인

부제: 어쩌다 신들의 연극은 아수라장이 되었을까

2024. 11. 22.(금) 19:30, 11.23.(토) 1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15세 이상 관람가

연출 주형준
출연 엄지선 | 오희경 | 채민수 | 이태성 | 조정우 | 박규한
이수현 | 이소희 | 전용균 | 하다현 | 김여진 | 김선현
이영준 | 유시화 | 강담서 | 김상훈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Busan
is good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미술사학자

양정무

11.30.(토) 15:00

르네상스의 완성과
종교개혁

(난처한 미술이야기)

공연 해금 김준희 | 피아노 김란

2024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3만원 | S석 2만원

예매 및 문의

www.bscc.or.kr 051-607-6000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주최 | 주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BY RONALD HARWOOD

THE DRESSER

더드레서

2024. 12. 6.(금) 19:30 / 12. 7.(토) 14: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